

1,300,000ha 지역을 이용하여 1,000,000 ha에 달하는 농경지를 만들어 자바섬에 살고있는 사람을 이주시켜 쌀을 생산하려는 프로젝트이다. 공사구간은 A, B, C, D, E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A지역에 대한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 분석방법

인도네시아 산불에 대한 분석은 산불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규명과, 산불이 진행에 영향을 미친 주체들의 행태, 산불로 인하여 나타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피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5.1 산불 발생 원인

산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 틀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주체간 이해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산불에 영향을 미친 주체별 행태라고 볼 수 있다.

5.1.1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주체간 이해관계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행위주체간 토지이용에 따른 이해관계를 <표 3>과 같이 가정하고 산불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3> 인도네시아의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주체간 이해관계

주 체 \ 이해관계	협력관계	경쟁관계	갈등관계
정 부	기업	-	주민
기 업	정부	기업	주민
주 민	주민	이주민	정부, 기업

5.1.2 산불에 영향을 미친 주체별 행태

산불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주체인 정부, 기업, 주민들이 환경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고, 산불발생기인 건기에 어떤 행태를 갖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고 방제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4> 산불에 영향을 미친 주체별 행태

주 체 \ 전개과정	환경변화	산불발생기 주체별 행태	산불
정 부	벌목허가권, 환경정책, 산림정책, 인구정책, 농업정책, 이주정책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 공무원 교육체계, 기상정보 활용체계, 기후변화 대응체계	대통령, 장관, 지방정부, 산불방제
기 업	벌목, 도로건설, 대규모 플랜테이션	대규모플랜테이션 개발	대규모 플랜테이션 주변에서 발생
주 민	화전경작	화전, 소규모 농지개발	산불방제를 위해 노력

5.2 산불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인도네시아 산불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 틀은 <표 4>와 같이 대상에 따라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영향범위에 따라 지역, 국가, 지구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범주와 영향범위에 따른 산불 영향

영향범위 \ 범주	생태계	경제	사회
지 역	식물, 토양, 야생동물, 수자원	산림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음식과 물 공급비용 증가	일상생활의 교란, 교육체계의 교란, 산업의 교란, 수송의 교란, 공공 건강에 영향, 피부 및 눈 자극 등
국 가	대기오염, 산성비, 엘니뇨 증가	산업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무역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상생활의 교란, 교육체계의 교란, 산업의 교란, 수송의 교란, 공공 건강에 영향, 피부 및 눈 자극 등
지 구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방출 증가	국제무역, 관광산업, 재정지원	사회와 대중의 불안, 정치에 간접적인 영향, 재재

6. 결과

6.1 산불발생원인

산림개발은 일차적으로 벌목을 하게되고,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설해야하고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접근성이 좋아져 또 다른 형태의 개발로 이어져 열대림 탈산림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천연 열대림은 지형조건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다. 생태학적으로 벌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즉, 물순환이 교란되고, 토양침식이 심화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생태적 안정성이 취약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벌목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양산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6.1.1 벌목(1967-현재)

1966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약 75%(144 백만 ha)가 열대우림으로 덮여있었다. 이 숲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열대우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967년부터 벌을 갖기 위해 열대림 개발은 국가발전정책 일부가 되었다. 열대림 면적은 1982년 119.3 백만 ha(62%), 1993년 92.4백만 ha(48.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벌목은 물순환체계를 교란시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엘니뇨 등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시켜 산불 발생시 피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1.2 대규모 플랜테이션(~1989)

펄프와 제지 플랜테이션, 나무작물 플랜테이션 등 플랜테이션 개발과 이주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산불 가운데 80% 가량이 이주를 위한 벌채지역, 플랜테이션 사업, 벌목회사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 펄프와 제지 플랜테이션 개발

펄프와 제지산업이 분리되어 1997년 현재 66개 펄프/제지 공장이 열대림 지역에 있으며, 여전히 천연림으로부터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2) 나무작물 플랜테이션

팜 오일, 고무, 커피, 코코아, 후추 등과 같은 작물에 대한 플랜테이션을 통하여 외화를 얻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6.1.3 플랜테이션 개발과 이주정책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정부 이주정책은 플랜테이션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플랜테이션 개발업자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수마트라, 칼리만탄, 이리안자야 등에 집중하였다. HTI는

알고있는 회사에 벌목면허권을 주는 대신에 펄프나 제지, 작물과 같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새로운 이주장소를 만드는데 정부는 돈이 하나도 들이지 않고, 기업에 이주자들로 구성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정부 자체가 여전히 대규모 이주, 열대림 탈산림화, 산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칼리만탄 경우 이주자들이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6/87에는 135,000명이 되었다. 특히, 중부 칼리만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만 헥타 이주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관 시화호와 유사하다. 첫째,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공동체가 형성, 유지, 발전하는 토대인 삶을 사유화시키려는 점이다. 넷째, 군사정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등이다.

6.1.4 환경정책의 이중성과 플랜테이션 개발

정부의 이중적인 역할과 장관들의 환경 이슈에 대한 염려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각 부에 소속된 부속기관들은 주요한 개발기구로써, 개발정책의 정치적인 방향을 설정,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등 장관들에 의해 도구로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장관들에게 있음이 인도네시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6.2 산불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인도네시아에서 1982년부터 산불 발생지역과 피해면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생한 산불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과 공간적으로 지역, 국가, 지구차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종합하여 파악하였다.

6.2.1 생태학적 영향

생태학적 영향은 지역에서는 침식, 수문학, 생물다양성 등에서 나타나며, 국가단위에서는 산성비와 대기오염, 지구적 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 기후변화, 엘니뇨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 지역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영향은 생태계 기능, 침식, 수문학, 생물다양성 등에 대해 나타난다.

1) 생태계 기능

산불을 통하여 초목, 토양, 물, 공기 등과 같은 모든 환경적인 매개물들이 영향을 받았다.

잠재적인 수분 보유력, 여과능력, 잠재적인 서식지 등과 같은 생태계 기능과 에너지 낭비, 물 순환 등과 같은 생태계 전개과정 들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산불재앙은 인위적인 변화 영향과 생태계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숲이 타는 동안 불에 적응을 할 수 없는 식물들은 장기적 또는 영원히 초목피복을 초래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숲은 사라지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되었다. 깔리만판에서는 반복되는 불을 통하여 "alang-alang grasslands"로 이미 대체되었다.

2) 침식

산불로 인하여 초목 피복이 파괴된 표층은 그 다음 우기에 쉽게 쓸려 내려간다. 불 탄 1차 숲지역에서 침식은 1000배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깔리만판은 잠재적인 침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지표층 불로 인하여 침식률이 뚜렷하게 증가한다해도, 숲 층위구조에서 유기물을 덮고있는 것이 탈 경우 무기물 표층이 노출되게 된다. 침식된 토양이나 재 등이 수계로 들어가면, 수생생물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되며 담수와 연안생태계에 피해를 주게된다.

3) 수문학

초목이 크고 작은 지역에서 불에 타는 것은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국지기상 변화를 초래한다. 증발과 증산작용이 지역 강우에 50-75% 기여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물균형은 우림지역이 불타거나 탈산림화 되었을 때 교란되기 시작한다. 열대우림이 보다 넓은 면적에서 탈산림화 되었을 때 물순환과 기후에 미치는 충격은 증가한다.

4) 생물다양성

열대 천연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불의 급격한 영향으로 위협을 받고 있거나 손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고유의 식물과 야생동물을 가지고 있다. 오랑우탄처럼 열매를 과일을 먹는 포유동물, 잎 뒷개에서 살고있는 동물들, 많은 종을 차지하는 곤충들은 1982/83년에 산불영향을 받았기 이번 산불영향에 대한 지표가 되고 있다. 깔리만판 250, 수마트라 180종이 소멸하였다. 산불 영향으로 새 104종, 포유류 57종, 파충류 21종, 담수어류 65종 인도네시아 "위기종"에 올라갔다.

꾸따이 국립공원은 주위가 벌목지역, 광산, 플랜테이션 면허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1998년 산불로 전체면적 198,000 ha가운데 71,000 ha 이상이 파괴되었다. 생물학자들은 남아있는 꾸따이국립공원 면적이 너무 작아 오랑우탄 개체군이 유지되기에 너무 작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모든 주를 통 털어서 2000마리 정도 오랑우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전문가

에 의하면 산림이 풍부한 극상을 이루는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5) 이탄토양 산불

특별한 산불문제가 중부 깔리만판 이탄토양프로젝트로부터 일어났다. 지구적 탄소순환에 열대 이탄토양 역할은 온대지역보다 높다. 대략 지구 이탄토양 탄소가운데 15%가 열대 이탄 토양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가 지구전체 이탄토양 (20 백만 ha)가운데 60%이상을 가지고 있다.

(2) 국가

큰 범위에서 탈산림화와 산불의 종합된 영향은 국가단위에서 생태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산불로 인한 산성비나 대기오염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접한 이웃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건조에 의해 보다 빈번하게, 보다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적 수문학적 순환은 지구적 차원의 수문학적 순환 및 대기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산불 영향으로 엘니뇨 영향이 보다 빈번하게 보다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3) 지구적 영향

1) 이산화탄소

1997년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1년 동안 유럽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처럼 급격한 이산화탄소 흡수체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은 엘니뇨의 영향을 강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2) 엘니뇨

엘니뇨는 빈도와 강도가 이미 증가하였다. 수십 년 전에는 엘니뇨가 단지 4-8년에 1회 일어났으며 강도도 심하지 않았으나 지난 20여 년 간에는 2-4년에 1회 일어났고 강도도 심해졌다.

6.2.2 경제적 영향

주요한 경제적 손실은 지역과 국가단위에서 일어났다.

(1) 지역

산불발생지역에서 나타난 경제적 손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활동을 통하여 직접

적으로 나타난 것과 음식과 물 공급비용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통계자료가 나와있지 않다.

(2) 국가

국가단위에서는 생산활동과 국제무역 교란 등이 있으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997년 9월 산림지역 손실만 35억 달러 정도로 산림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3) 인접국가

1997년 10월 WWF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산업활동 위축과 관광객 감소로 3억 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싱가포르의 관광객 감소로 6천만 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였다.

6.2.3 사회적 영향

(1)지역

산불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연무로 인하여 수송체계가 교란되어 물자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교란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써 교육체계가 마비되고, 생산현장에서는 물자공급과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산업이 교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쳐 기관지, 피부 및 눈 자극 등을 자극하였다.

(2)국가

1997년 10월, WWF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건강비용이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는 단기간 건강비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산림자원, 생물다양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3)인접국가

아시아 6개 국가 7천만 명이 산불재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모니터링체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추정된 것일 뿐이다. 말라시아와 싱가포르는 인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PSI(Pollutant Standard Index)가 있는데, PSI지수 800을 넘어섰다(PSI 100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PSI 300은 위험을 나타낸다). 산불이 피크를 이룰 때는 말라시아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5갑을 태우는 것과 유사할 정도였다. 인도네시아, 말라

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나타난 병들은 천식, 기관지염, 결막염, 습진, 눈이나 피부 염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눈이나 피부염증이 1997년 8월부터 10월까지 14%를 차지하였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했고, 공장문이 닫히면서 노동생활에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수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배, 비행기 사고가 나타났다. 1998년 산불로 인한 연무와 연기는 동떨리만땅, 말레이시아 동부(사라와크), 브르네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7. 한국의 산불 발생 원인과 영향

한국에서 발생하는 산불 발생원인과 그 영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사훈련, 행락객 부주의, 논두렁 태우기, 갈등/원한, 건조기후, 무속인들 촛불 등이다.

7.1 군사 훈련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상황에서 군부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과 군사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인 고성산 불도 군부대에서 폭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음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군과 관련한 사례를 모은 것이다.

7.1.1 화공작전

비무장지대(DMZ) 안에서는 관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년 봄이면 건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잡목들을 불태운다. 바람 방향에 따라 북쪽 남쪽에서 불을 지른다. 이 과정에서 불이 철책선을 넘어가는 경우 피해가 확대된다. 1994년 3월 1일 3시 38분쯤 북한쪽 비무장지대인 과주군 군내면 도라산리에서 화재가 발생, 비무장지대내 임야 1백50ha를 태우고 북쪽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 33발이 터졌다.

7.1.2 사격연습

군부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격연습인데, 이 과정에서도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1994년 11월 7일 오전 11시 35분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 민통선북방에서 사격연습 중 불꽃이 풀밭으로 옮겨 붙어 10ha이상의 임야를 태운 것이다. 이외에도 전남 여천, 곡성, 보성, 순천과 경북 영덕, 경주, 안동, 성주 및 강원 화천, 횡성, 태백 등에서도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 등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다.

7.1.3 지뢰

군사보호 지역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산불이 이 지역으로 확산될 때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 1996년 2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산 군사보호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임야 3천 여 평을 태운 채 확산되어 진화에 나섰으나 군작전지역인 중리산 곳곳에 매설된 지뢰중 5~6개 가 폭발하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7.1.4 포사격훈련

포사격 훈련 과정에서도 떨어진 포탄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사례는 세 가지가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것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 동두천시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결산동 미군 2사단내 탱크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미 제2여단 503보병대대소속 미군 14명이 산에서 연발사격훈련 중 기관포탄이 야산에 떨어지면서 마른 활엽수 잡목에 불이 붙어 이를 진화하려던 산림계장과 공익근무요원 등 7명이 사망하였다.

◆ 고성군

1996년 4월 23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군합동사격장에서 발생, 강풍을 타고 인근 산으로 확산돼 24일 죽왕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2천5백여ha의 임야를 태우고, 1백 6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또한, 이 불로 죽왕면 삼포리 38가구를 비롯 인정리, 오호리, 구성리 등 7개 지역 가옥 70채가 불에 탔고 53세대 1백62명의 주민이 죽왕면 노인회관에 대피했다. 또 축사 32채와 창고 70채가 전소됐고, 한우 27마리와 염소 개 토끼 40여 마리, 닭 칠면조 2백2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어 9억5천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1.5 군부대내 작업

1997년 4월 12일 발생한 산불가운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군부대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산불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오전 10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상대리 육군 모부대 사격장에서는 시설 보수작업 중 철근 절단기에서 튀 불꽃이 잔디에 옮겨붙은 뒤 산으로 번져 임야 10ha와 민가 9채를 태우고 오후 늦게 꺼졌다.

7.2 행사객 부주의

행사객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1994년 3월 27일 휴일 봄맞이 산행인파가 몰린 27일 하루동안 부산시 백양산을 비롯, 강원 경북 전남 경남지역에서 산불이 나 산림 등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 1994년 11월 2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국립공원설악산 남설악 분당골에서 등산객들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산불이 나 산림 2ha (경찰추산) 를 태우고 3시간 40분만에 꺼졌다.

7.3 논두렁 불지르기

해충방제를 목적으로 논두렁에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불이 인근 지역 산으로 옮겨 붙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1994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1리에서 마을 주민 서무효씨 (81) 가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서씨가 불에 타 숨지고 임야 1천5백 평이 불에 탔다. 1995년 3월 8일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논두렁 불지르기 잘못 등으로 충남 연기군, 경북 영천시 등 전국에서 20여건에 이르는 산불이 나 12ha를 태웠다.

7.4 갈등/원한

갈등이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도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1994년 4월 20여일 사이에 국내 최대 제지업체인 (주) 한솔제지 조립지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에서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10여 차례나 발생하여 10ha를 태웠다. 1996년 2월 20일 오후 9시13분쯤 도봉1동 산41 국립공원 도봉산 만장봉 부근에서 불이 50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하여 2천 평을 태우고 진화되었다.

7.5 건조기후와 산불

건조한 기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요령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가뭄과 날씨 탓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1994년 10월 8일 대구시 동구 지묘동 왕산,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시락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올 산불 발생이 지난해 보다 5배나 크게 늘어났다. 내무부 권형신 민방위국장에 따르면 1995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80건의 산불로 1백12.2ha의 수목이 타버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 13.25ha에 비해 건수로는 5배, 면적으로는 7.5배의 피해가 발생했다.

7.6 무속인들 쫓불

무속인들이 명산 곳곳에 쫓불을 동굴이나 바위틈에 켜놓고 복을 기원하는 과정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1997년 5월 1일 오후 8시26분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국립공원 설악산 내 소공원과 권금성 산장 사이에서 무속인들이 켜놓은 쫓불이 인근 숲에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여 2ha가 피해를 보았다.

7.7 규제조치

산불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등산로 폐쇄조치이다. 1996년 10월 16일 전남 구례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지리산 9개 등산로 가운데 6개 등산로 43km를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폐쇄조치를 내렸다. 기상조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 등에 따라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997년 2월 22일 영남지방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대체되고, 강원영동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농림부 산하 산림청에서는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1997년 10월 25일 시행,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중전 5만 원) 의 과태료가, 산림주변 1백m 이내에서 불을 놓을 경우는 1백만 원의 벌금 (중전 과태료 30만 원) 이 부과된다.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와 산림보호 표지판 훼손행위는 각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죄도 3년 이하의 금고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전 5백만 원) 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7.8 처벌

산불예방 소홀로 인한 지자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고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내무부는 1994년 3월 28일 지역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예방 및 수습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문화부산지장, 이상룡강원도지사, 변익규부산시북구청장, 최중규강원도명주군수 등 4명을 경고조치 했다. 또한, 4월 2일 관할 구역에서 대형 산불이 난 이종주 대구시장과 조규하 전남지사에게 엄중 주의조치를 내리고, 김일수 대구시 동구청장과 이상호 전남 보성군수를 경고조치 하는 한편, 대구시와 전남도의 산불관련 담당국장 등에게 시·도 지사가 문책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1996년 4월 2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8군수지원단 58탄약대대 폭발물처리반장 정재석 중사 (29) 를 구속하는 한편 지휘 및 감독책임을 물어 이 부대 대대장 신유승 소령 (38) 을 보직해임하고 8군수지원단장 정태호 대령 (45) 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8. 맺음말

인도네시아 산불이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남북대치라는 정치군사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크게 확대해서 보면 갈등관계가 산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갈등관계가 완화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이용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지역주민들이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민단체간 산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과제가 제기된다.

별첨 자료1. 인도네시아 조사일정표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비고
8/16 - 8/17	-	서울-자카르타	인도네시아로 출발	항공기(JAL)
8/18	10:00-14:00	WALHI	조사일정점검	
	15:00-19:00	BOGOR	TOGO박사 간담회	BIOTROP
8/19	08:20-09:20	PALEMBANG	조사지로 이동	항공기(GIA)
	11:00-15:00	LBHA	산불관련 미팅	대학생
	15:00-22:00	BETUNG	산불현장으로 이동	렌트카
	23:00-24:00	BETUNG / 추장집	5개부락 60여명과 간담회	
8/20	08:00-22:00	Plantation 지역	산불 현장조사	렌트카
8/21	10:00-11:00	Jakarta	Jakarta로 이동	항공기(GIA)
	16:00-19:20	Balikpapan	Kalimantan으로 이동	항공기(GIA)
	20:00-22:00	Samarinda	Samarinda로 이동	렌트카
8/22	09:00-22:00	Kutai National Park	산불 현장조사	렌트카
8/23	09:00-12:00	WALHI Samarinda	L.B. Dingit 인터뷰 (1997년 골드만상 수상)	지속가능한 열대림 이용
	13:00 -	Samarinda → Banjarmasin	남부칼리만탄으로 이동	렌트카(15시간)
8/24	08:00-20:00	Mega Rice Project	산불현장조사	
	20:00-24:00	WALHI Banjarmasin	산불관련 워크샵	활동가
8/25	10:40-11:20	Bajarmasin → Jakarta	이동	항공기
	15:00-18:00	WALHI	산불워크샵	30여명 참석
8/26	08:00-18:00	Bogor	정상적인 열대림 조사	식물원
8/27	17:00-18:00	Bali	조사지로 이동	
8/28-30	-	Bali	관광영향조사	
8/30-8/31	-	김포	귀국	

세계화 덫을 빠져 나오려는 생산 참여형 소비자 운동

이정옥 (호성가톨릭대학 사회학, 참여인대 국제인권센터 부소장)

1. 세계화의 음지와 양지

200만 명의 실업자, 노숙자, 언제 떨어져 날지 모르는 잠재적 실업 심리로 얼어붙은 소비, IMF시대 1년의 터널은 길고도 길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가혹한 것 같은 이 고통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 프랑스 실업자 운동을 이끄는 크리스토프 아가통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프랑스에 700만에 달한다고 강조한다.

실업자만이 문제인가? 발전의 장밋빛 희망을 안고 앞 다투어 만들어 낸 남아시아의 자유 무역 지대의 여공들은 각종 산업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세계화의 음지라면 세계화의 양지는 화려한 상품광고와 고급 백화점의 쇼윈도우 등의 소비의 영역이다. 바야흐로 소비자가 왕인 세상이다. 국경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면서 소비 욕구가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다. 수출 자유 지역의 여공의 한달 월급은 고급 프랑스 향수 한 병으로 날아가며,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로 달아지고 마셔대는 코카콜라로 흘러내린다. 치열한 상품 소비의 광고 경쟁의 끝은 힘있는 다국적 기업의 승리로 끝난다.

세계화의 결과 전세계의 소비가 몇몇 다국적 기업의 주도로 바뀌게 된다. 다국적 기업의 상품이 뚫고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다. 우선은 광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동경과 선망을 만들어 낸다. 전 세계 청소년 패션을 장악하고 있는 베네통, 나이키 선발, 리복 운동화 등등 소비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낸다.

다음으로는 가격 경쟁이다. 최근 까르푸 등의 다국적 기업의 유통 업체들은 파격적인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다. 값싼 수입 농산물 때문에 농업 생산이 어떻게 위축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입 과일, 수입 곡물 등의 방부제 처리가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도 그들의 가격 경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우리의 옛

속담은 이 경우의 경고로 딱 적합하다. 우리가 근거 없는 선망에 끌려 단순히 싼값에 끌려 소비 습관을 형성해 갈 때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하청 구조로 예측되어 가게 된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틀에서 노동 수출국, 상품 수출국을 거쳐 마침내 자본 수출국으로까지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자본 수출국으로의 위상은 채무국으로 전락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말로만 외치던 세계화의 쓴맛을 톡톡하게 보게 된 셈이다.

2. 세계화의 덫: 무한경쟁의 끝은 어디인가?

1) 제3의 길은 있는가? : 유럽

공존을 강조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이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생산성 향상 위주 정책으로 비롯된 생태계 파괴와 기능적으로 얽힌 컴퓨터 연결망 등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복합 위험 사회'를 만들어 냈다. 위험에 대한 공통의 위기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제와 공평한 분배의 실현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에서 모색하는 제3의 길은 기존의 성장 위주 또는 분배 위주의 발전 모델의 사잇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장받고 투자 조건을 유리하게 보장받는 대신 기업은 실업 보험금 부담 등 세금을 통해 분배 문제에 '참여'해야만 한다. 기업이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가가 실업문제 등 공공 복지 책임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은 최근 유럽에서 잇달아 분배 정책을 우선하는 정권 탄생으로 가시화 되었다. 즉, 영국의 노동당 내각, 프랑스의 사회당 내각, 독일의 사민당 내각 등은 자유주의에 대한 공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 이후 유럽에 당면한 사회문제는 실업자 문제로 집약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신자유주의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를 조장하여 20대 80의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즉, 인구의 20%만이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동참하고 나머지 80%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97년에 거세게 일어난 유럽의 실업자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사회 운동에 대해 시사적이었다. 우선 단순히 노동시간의 단축, 실업 보험금의 확대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지 않고 현재의 기이한 경제 구조 자체에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실업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진단한 기이한 사회를 문제시한다. 부르디외는 현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진단한다. "광적인 소비와 빈곤이라는 두 현상은 단순히 공존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주식시장이 추매를 들면 실업자들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한쪽은 자면서도 부를 축적하는데 다른 쪽은 매일 조금씩 빈곤해지고 있다. 사실상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시장 안에서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노동 강도의 강화, 노동조건 악화, 불안정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된

다. 실업은 유연화 정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파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실제로 공장들이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공장들이 해고를 단행하게 되면 주식 값은 폭등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외, 1998 : 55) 그 결과 실업자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근본적인 요구를 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정부도 실업에 대한 장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배경에는 1997년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3%나 증가하였고 기업들의 이윤율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업자 운동이 적어도 유럽 내에서도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연합 15개국에 퍼져 있는 300명의 통신원들이 활약을 하여 1997년 4월부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6월 14일 암스테르담에서 대대적인 유럽 연합 반대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 유럽을 통과하는 행진 과정에서도 유럽 연합의 경제정책에 항의를 표시하였다. 수천 만 명의 소외 계층을 양산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것만을 우선하는 유럽 연합에 반대함으로써 실업자 서로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모색하고 있는 제3의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 실업자 운동의 요구 사항을 정책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정책 강령은 아래와 같다.

- 나이 성별 국적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소득 보장
- 주당 35시간, 32시간, 향후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유럽 전역에서 즉각 단축되 단축에 따라 임금 삭감이나 구매력 상실 유연화나 연 단위 변형 근로 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을 것
- 임금과 지위가 보장되며 사회 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것
- 복직, 고용가치 우선이라는 미명으로 실업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의 일자리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강요된 노동 반대
- 지위와 수입의 불안정화, 강요된 파트타임 해고, 추가 노동 반대
- 어린이 돌보기 같은 집단적 조치의 발전으로 고용과 수입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 반대
- 현존하는 사회적 권리와 요구 사항을 유럽 전체에서 신장된 시민의 권리에 맞추어 조화롭게 실현할 것
- 보건권 주거권 교육 문화 평생교육의 권리 청소년의 소득, 고용, 직업 훈련의 권리, 교통과 모든 통신 수단, 전기, 물, 가스의 이용, 퇴직의 권리를 위하여

2 김신양 편역,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1998, 두리, 55

- 남녀평등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 유아 노동 불법 노동을 통한 이민 노동자의 착취 반대
- 불안정 노동 반대
- 실업자 조직이나 실업자 연합 단체의 인정과 실업자 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공동투쟁 등의 노동권을 위하여
- 차별, 인종주의, 국수주의, 국경 없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정치권 시민권 영주권을 부여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환경 보호 연대 의식이 높은 유럽을 위하여

2) 신흥공업국 신드롬 : 아시아

유럽의 실업자가 만들어지는 이면에서 값싼 노동력을 따라온 외자기업의 주 활동무대인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곳곳에 만들어졌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를 지배하였던 패러다임은 신흥공업국 러시였다. 네 마리 용의 신화로 압축되는 신흥공업국의 성공 사례가 신화화되었고 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앞다투어 외자를 받아들이고 외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어 냈다. 아시아의 자유무역 지대는 1960년대 말 과 1970년대 초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만 한국 홍콩을 필두로 1991년에는 베트남까지에 이르렀다. 1995년에 타이에는 21개의 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가 설정되어 있다. 필리핀에도 197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바탄을 비롯 맥탄 세워 까비페 등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1985년에 세워진 가와산 지역을 비롯 사기업이 관장하는 경제 특구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광조우 쉐하이 쉐젠 종산 동구완 뽕산 장먼 취조우 등 8개의 자치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광둥지역은 1978년에 선포된 중국의 개방 경제의 대명사가 된 지역이다. 뒤늦게 시장 경제의 대열에 합세하고 있는 베트남 역시 호지민 시티를 비롯하여 6개의 자유무역 지대를 설정하고 있다.

신흥공업국 풍조는 외자도입에 가장 저항적이었던 인도까지도 신경제계획을 통해 외자도입을 통한 공업화를 추진하는 신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었다. 신경제계획을 입안하는 이유를 인도 경제가 시장의 원리밖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서 비능률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경제를 국내적 차원에서나 세계적 차원에서 구조 조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Gopal Grue, 1995 : 50)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전역을 뒤덮었던 신흥공업국을 향한 행진은 숨가뻐다. 그 숨가쁜 행진을 위해 아시아 각국이 치른 일차적인 대가는 컸다.

"1987년부터 신흥공업국 풍조가 게임의 주조였다. 정부는 수출, 관광업, 농가공업을 강조

하였다. 해외 자본 특히 일본 자본이 들어와 태일랜드는 수출 생산기지가 되었다. 동부 해안 지역이 관광지 골프장 양식 장이 되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일어났다."(Suthy Prasartset, "The rise of Social Movement in Thailand", Asian Exchange vol 11, no.2, 1995, p.82)

3) 신흥공업국 신드롬의 대가

아시아를 휩쓸었던 신흥공업국 열기는 그 대가를 요구했다. 앞다투어 이루어진 외자에 대한 문호개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생태 파괴, 성불평등의 심화, 전통적인 지식과 숙련 기술의 말살 등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태일랜드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타이 사회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민중부문이 주변화 되고 정치 경제 권력이 기업과 국가 부문에 집중된 점 2)발전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지역 간 부문간 격차가 커진 점 3)민중부문의 생활자원이었던 천연자원이 황폐화된 점 4)환경과 생태파괴 등을 들 수 있다. (Suthy Prasartset, "The Rise of Ngos as a Critical Social movement in Thailand", Asian Exchange, Vol. 11, no2, 1995 p. 76)"

필리핀에서도

"경제가 세계화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값싼 수입품의 덤핑 공세 때문에 토착 산업이 고사해 가고 있다. 정부의 관세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입품의 값이 싸졌다. 게다가 다국적기업에게 주는 특혜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토착 업체를 말아먹거나 합병하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자의 해고로 나타난다. 결국 경제의 세계화는 고용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경제의 세계화를 경영에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의 조직화를 약화시키게 된다. 생산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다." (AMRC, 1995 : 25)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에 가려진 환경 및 사회 비용의 대가는 크다. 그 비용에는 1)환경의 훼손과 지역 공동체의 생계자원의 고갈 2) 공단, 주택가, 골프장 관광단지, 도로 등의 조성을 통한 대규모 인구 이동 3)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 4)물질주의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소비 수준의 증가 5)섹스관광 도입으로 가족생활 기반파괴 6) 토착문화, 지식, 지혜, 숙련기술의 기반 파괴 7)경쟁의 가속화 등이 '숨어' 있다. 이 비용은 외국 투자자들이 결코 계산해 주지 않는 비용이다.

25년 전에 이미 경제발전이 "커지는 파이" 인지 "똑같은 파이"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술 낙관론이 지배하고 환경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커지는 파이”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는 “커지는 파이”의 생태학적 근거를 따지지 않았다. “커지는 파이”는 천연자원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계기반을 잠식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속 가능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촌공동체, 빈곤층, 토착 부문에는 여성이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 과정에는 물론 1)역사적으로 잔존해 왔던 성불평등 2)역사적 불평등을 현재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 3)여성이 가진 생계 자원의 박탈 과정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작용하고 있다.

여성은 직접 자연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토착 공동체에서 여성은 생태과피의 피해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토지 식량 물 피난처 연료 등의 손실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직접적이다. 1972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인도에서는 농민운동이 거세게 나타났다. 농민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농산물 가격 책정을 둘러싼 것이었는데 운동의 전면에는 여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73년에 북부 인도의 산악 지역에서 여성들이 나무를 베어내지 못하게 나무를 끌어안은 사건이 일어났다. (Gopal Grue, "Social Movements Response to the New Economic Policy in India," Asian Exchange, vol 11, no., 2, 1995 p. 51) 칩코운동이라고 알려진 이 운동은 인도 전역에 퍼졌다. 나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의 나무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생계 수단인 나무가 단지 하키 자루나 크리켓 배트를 만들기 위해 잘린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보팔 참사에 대한 대응, 나르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에서도 여성은 늘 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들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변화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Vinod Raina, 1995 : 65)

4. 세계화의 뒷에서 빠져 나오려는 노력들:

생산참여형 소비자 운동

세계화의 뒷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대안 운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로 집약된다. 다국적 기업은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빈다. 한 지역에서 노동운동이 거세지고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국제연대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생산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은 사회 변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 운동을 통한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기업의 생산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과정을 감시하여 제품의 소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이 사회적 반향을 얻게 되자 네덜란드에서는 모피 코트를 입는 것이 사회적 수치로 평가되면서 모피 코트 생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최근 “자연주의”와 “생태주의”를 강조하는 사회풍조에 힘입어 소위 모든 제품에 “에코” 풍이 유행하게 된 것도 그 사례이다. 베를린 장막이 걷히고 밀실에서 담합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은 “투명”을 강조하는 유행으로 반응하였다. “소비자”, “시민”, “NGO”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 운동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소비자”의 운동을 통한 대안 운동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본의 소비자 운동

1960대 이후 배출된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은 소비자 운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부들에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조직화하고 교육하였다. 소비자 운동의 지도자들은 중산층 주부들 속으로 들어가 유기농법과 안전 식품에 대해 말했다. 그 결과 특히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소규모 조직망을 만들어 협동조합의 기초를 만들어 냈다. 국내에서의 협동조합으로 정착한 소비자 운동은 1989년 국경을 넘는 협동조합운동을 시도하였다. 1989년 4대 소비자 협동조합이 대안 무역 일본(ATJ)을 설립하였다. 처음 상품으로 바나나의 일종인 발랑곤을 필리핀으로부터 운동단체가 직접 수입하기로 했다. 바나나는 델몬트 등 다국적 기업에서 수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바나나를 택한 이유는 바나나가 화학처리를 22번이나 해야 하는 데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무역 양태와 경쟁하기 위해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바나나 수입을 시도하였다. 결과는 번번이 실패한 바나나만 남았다. 처음에는 실패로 돌렸으나 나중에는 실패한 바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예를 들면 바나나를 수입하는 네그로스 지역이 군사화 됨에 따라 탁송물 역류가 되어 바나나가 모두 썩어 있었다. 썩은 바나나를 통해 아키노 정부 하에서의 군사화를 주부들이 부엌에서 소식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5년만에 수입량은 월 150톤이 되어 다국적 기업의 수입 총량의 0.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바나나는 매달 70만 일본 가정에 팔리고 있다. 바나나 무역을 통해 네그로스 지역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발랑곤 생산자 협의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200가정을 회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총 600가정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5개년 계획을 세워 바나나 생산계획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 현금 수입에 몰두하여 바나나 단작 지대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태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실, 공동체가 바나나 유통까지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의 소비품을 위한 협동조합 체제를 갖추어 가게 된 것 등이 변화였다.

바나나는 일본의 중산층 소비자 교육의 자료로 쓰인다. 소비자 그룹 지도자들을 생산지로

현지 체험여행을 시킨다. 그들은 체험여행을 통해 일본 회사들이 필리핀의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것을 직접 보고 남북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그 결과 바나나의 질이 나쁘고 다국적 기업의 그것에 비해 값이 비싸도 불평이 없게 된다. 바나나는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의사 소통의 매체이다. ATJ는 바나나 외에도 인도네시아산 새우, 한국의 김치, 에콰도르산 커피, 니카라구아산 참깨와 가죽 가방을 수입하고 있다. 이 무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예를 들면 냉동식품은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쉽게 팔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 상품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즉, 상품은 연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일본의 대안 무역과 유사한 형태로 홍콩의 진보적인 학생 단체인 CSD가 주도해서 중국의 장시지역의 여성들로부터 백합유 재료인 백합꽃을 수입하는 대안 무역을 개척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백합꽃 재배와 수출 과정에서의 홍콩의 대학생들과 중국 농촌 여성간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홍콩에서의 사례가 일본과 다른 점은 홍콩에서는 중산층 소비자 조직이 배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은 주로 장시지역에 여성 협동조합 공동체를 세우는 계몽적인 차원에 있다.

2) 한국의 우리 밀 운동

'신토불이' 붐을 일으킨 우리 밀 운동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5년 16,000,000평방 킬로의 경작지, 16만 명의 회원, 연 천이 백만kg의 밀 생산량이라는 수치만 보아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밀 운동은 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소비제품을 국수, 빵, 밀 차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국내의 유명 제빵 업체인 고려당, 라면업체인 삼양라면 등에 납품까지 하게 됨으로써 기존 시장의 영역까지 진입을 시도하였다.

우리 밀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사회 운동에의 참여는 감옥을 가거나 투사가 되거나 직업 학업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입비 2만원으로 평생회원이 되고 우리 밀 소비자가 되면 된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반독재운동에 가세했던 학생운동 세력들이 졸업후 시민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달성된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노동자 중심의 사회 운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운동 주체와 운동 방식의 다양화 유연화가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생산자 중심의 지역 조직을 우선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직 방식을 택함으로써 저변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운동에 대한 참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우리 밀 회원은 초기 공급자 시장이었던 우리 밀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구매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밀밭 1평이 늘어나면 산소배출량이 254kg이 늘어남

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농민운동에 오래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농정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다가 비판을 넘어서 대안 제시 운동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대안 제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택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실천과 논의를 거듭한 다음이었다. 1984년에 정부가 우리 밀 수매를 중단하는 바람에 밀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게다가 점점 더 빵에 의존하는 식습관의 변화로 그야말로 주곡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의 위험을 감지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몇 농민운동가가 직접 우리 밀을 재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밀씨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지역 생산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할 것인가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 띄울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1991년 1,954명의 발기인을 필두로 전국적 차원으로 출범하였다. 발기인들은 농부만이 아니라 신부, 스님, 전문직 종사자들 주부 등 다양한 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밀 운동은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첫째는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사회운동도 도시 시민이나 공장 노동자 중심이었던데 반하여 우리 밀 운동은 밀 생산자 중심 즉 농민 중심의 운동을 폈다. 두 번째는 사업형 운동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간의 사회 운동이 일방적인 보조금이나 헌신에 의존하고 있었던 데 비해 우리 밀 운동은 자체 사업을 통해 운동을 한 셈이다. 운동의 '재정 자립'을 시도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우리 밀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사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수입 밀에 대항하고 '신토불이' 붐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생활 환경에 대한 자각을 높여 주었다. 세 번째는 비판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대안 제시적인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밀 운동을 필두로 우리 콩 살리기, 연어 살리기, 우리 강 살리기 등 대안 제시형 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는 식량의 수입 의존이 지니는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일반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환경에 보다 민감한 생활 운동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IMF는 우리 밀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성보다는 운동성에 치중하였던 우리 밀 운동은 이제는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우리 밀 운동이 IMF 체제에서 견딜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 밀을 기꺼이 더 비싼 값에 사주려는 중산층 소비자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 구조의 독점성 때문에 우리 밀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네덜란드의 깨끗한 옷입기운동(Clean Clothes Campaign): 기업감시형 소비자운동

"깨끗한 옷입기 운동"의 깨끗한 옷은 어떤 옷인가?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

하지 않은 더 직접적으로는 어린 여공의 피가 묻지 않은 옷을 사 입지 말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91년 벵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네덜란드 의류 공장에서 불이나 대형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20대 활동가들은 네덜란드 투자기업 중 아시아에 투자한 의류기업을 발로 뛰어다니며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덜란드 시민들에게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 옷을 사 입자는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유럽 6개 국가에까지 확대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유명 메이커의 하청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16시간 노동에 8달러를 받는 노동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을 사는 유럽 시민의 소비자 의식을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는 이제 상품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정무역의 과정을 거친 깨끗한 상품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정 무역 마크를 개발하여 기업과 소매점에 나누어줌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있다. 올바른 소비 유도를 위한 공정 무역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은 아시아 각국의 노동실태를 조사할 감시 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 공정 무역현장을 제정하여 기업가의 행동 윤리 강령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깨끗한 옷 입기 운동의 생산 현장 감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 대만 등의 하청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적, 한국적 기업문화다.

유럽 소비자들이 의식이 선진화되면서 이를 피해 나가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은 생산의 영역을 하청의 고리로 엮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모든 책임을 하청 공장으로 떠넘기는 식이다. 세계적인 의류 업체인 베네통은 디자인 개발과 광고를 제외한 생산 판매 등의 모든 영역을 하청화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유명상표일수록 하청조건이 불리하지만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하청 조건을 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 : 베네통

1957년 길리아나 베네통은 스웨터를 만드는 가내 수공업자였다. 남동생 루치아노는 주문과 판매를 맡았다. 스웨터가 잘 팔려 1965년에 이태리 북부인 폰짜노에 공장을 세웠다.

1991년에 공장은 12개로 불어나고 종업원이 1,6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재단과 염색 등 공정의 20%만 담당하고 나머지 노동집약적인 작업은 각 지역의 350에서 500개의 중소 규모 공장에 하청을 주고 있다. 각 하청 공장은 20-4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도합 30,000여명의 여성이 관련되어 일하고 있다. 이태리 공장법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공장에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장은 종업원은 가족, 친족 관계이다. 베네통은 자문과 충분한 일감을 대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청 공장은 베네통 만을 위해 일한다. 베네통에서 지급하는 가격은 그 지역의 다른 공장에서 지불하는 평균 보다 낮다.

베네통은 회사 소유가 아닌 가맹점에 옷을 판다. 1991년에는 세계 100개국에 6,500개의 매장이 있었다. 운영자 급은 18조달러이다.

베네통 가맹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베네통 제품만을 팔고 베네통 본사의 지시에 따라 매장을 꾸며야 한다. 뿐 아니라 8개월 전에 제품의 70%를 주문해야 한다. 재고는 반쯤되지 않는다. 반면 가맹비를 내지 않고 광고는 본사가 책임을 진다. 모든 가맹점은 본사의 중앙 컴퓨터와 연결되어 모든 매장은 매일 판매 정보를 전달한다. 베네통은 생산을 수요에 맞추게 된다. "베네통의 비밀은 팔리는 상품만 만든다는 것이다."고 루치아노 베네통은 장담한다. 그러나 '비밀'의 또 다른 측면은 생산 판매에 따르는 위험을 베네통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네트워크 기업이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베네통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Ineke Zeldenrust & Janneke van Eijik, Clean Clothes, SOMO Werkdocument nr 9, 1992: 7).

'깨끗한 옷 입기 운동' 본부가 의류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의류는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더욱이 생산자 소비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착안되었다. 현재 유럽에서 소비되는 의류의 대부분은 제3세계 자유무역 지대의 여공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의류 산업 생산자의 70%는 여성이다. 자유 무역 지대 의류업에서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여성이 의류업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다.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들인다.
- 여성 노동자들은 통제가 용이하다.
- 여성은 단순 반복적이고 집중을 요하는 일에 더 적응을 잘한다.
- 행정과 관리비용 면에서 동성고용이 유리하다.
- 남성들은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일관 조립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유무역 지대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아시아의 자유무역 지대에서 노조를 만들어 낸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 대만도 국민당 정부가 만든 어용노조가 있을 뿐이다. 태국은 노조 가입원 자격을 23세로 못박음으로써 10대 미혼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유무역 지대 여공을 배제시키고 있다. 국가 노조를 지키고 있는 베트남, 중국도 정부가 외자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독립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의 노동자의 권익단체가 없는 셈이다. 자유무역 지대의 노동조건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상여급과 복지혜택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유무역 지대에서 노동조건 개선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본철수'라는 대응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제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규제하는 국제적 규범은 있다.

ILO조항도 있고, 1970년대 이래로는 ILO, OECD, UN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규제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일 뿐이다. 노조활동과 국제기구를 통한 고용조건 개선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의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살 것과 사지 말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일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과 사회적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공정 무역 마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관건은 소비자가 깨끗한 옷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의식 교육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깨끗한 옷 입기 운동의 캠페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깨끗한 옷 입기 운동은 전세계 의류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판매 업자에게 압력을 넣어 생산지의 노동조직과 NGO를 지원하도록 한다.
- 노조내 소비자 단체 연구자 연대 그룹 제3세계 매장 등의 유럽 내 연대를 형성한다.

4) 윤리적기업과 윤리적 소비자



윤리적 소비자의 출현에 맞춰 윤리적 생산 구조로 변화한 사례가 에스프리와 바디샵이다. 이들 기업들은 경영 수치보다 자신들이 경영 방침으로 내세운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쇄신하여 성공을 거둔 경우이다.

사례 1: 녹색소비 유도: 에스프리

에코라인으로 유명한 에스프리는 윤리적 생산 과정을 도입하였다. '깨끗한' 판매를 내세운 판매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에스프리의 E-Line은 생태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뜻한다. 특히 스프레이 대신 천연 염색과 표백 방법을 사용하고 자연 먼을 소재로 하는 것으로 주조로 한다. 에스프리는 모든 의류 생산이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가지며 구매자들도 그 점까지도 눈 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스프리는 도그와 수지 톰킨스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자체 생산공장이 없이 대부분 극동지역에 하청 생산을 했다. 그러나 E-collection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에스프리는 본사 소유의 이미지 매장을 가지고 자사 제품만 취급한다. 이미지 매장은 다른 매장의 모델 노릇을 한다. 다른 가맹점들은 에스프리 외에도 다른 제품도 취급할 수 있다. 에스프리는 자신들의 판매 원칙에 맞지 않는 유행 제품을 팔지 않는다. 주문은 엄선하여 아시아를 비롯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지에 하며 양말은 독일에 한다. 에스프리는 생산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수지 톰킨스는 에스프리는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책기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연례 재무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사례 2: 윤리적 소비 유도: 바디샵

바디샵은 제품의 원료의 출처, 고용조건, 생산과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경영하는 업체이다. 아니타 로딕은 기존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반감에서 바디케어 제품을 파는 조그만 가게에서 출발하였다. 이제는 41개국 7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 바디샵은 기업철학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기업의 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금지
- 불필요한 낭비 금지
- 환경오염에 위협적인 원료 사용 금지
- 지난 5년간 동물실험 중지
- 제3세계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외에도 이 회사는 고래 보호, 숲 보호 등 환경 보호 캠페인을 주도하고 지원한다. 기본원칙 고수를 감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책임은 런던본부 EPD (Environmnet Projects Department)에 있는 4인이 담당하고 있다. 바디샵 제품의 70%는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TNA (Trade not Aid) 프로젝트를 통해 하청 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에서 생산, 포장, 운송 등의 기술을 제공하고 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청회사는 정당한 이윤을 남기고 바디샵에서 얻는 이윤은 지역공동체의 공중, 보건, 학교, 무이자 금고, 환경보호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TNA프로젝트에서는 선통기술, 지속 가능한 천연재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로서 ANA프로젝트에서 얻는 이윤은 미미한 정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 본사를 통해 얻는

수익과 맞먹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바디샵에서는 LCA (Life Cycle Assessment)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자사 생산품과 생태 친화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생산원료의 요소, 예를 들면 물의 정화 과정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료 공급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하청 고리 과정에서 제 때에 돈을 지불하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한지 바디샵의 환경 친화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윤리”와 “환경 친화성”을 기업 이미지로 내세워 성공한 두 사례는 그간의 소비자 운동이 거둔 업적이다. 그렇지만 기업이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바디샵에서는 검토 과정이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와 그것을 소비자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게 된다.

중남미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문화에 대하여

안테관 (인천시정 문화정책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TIME>지에 실린 글 “일본의 기적이 실패하고 있다”를 읽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일본은 나라 전체는 또는 몇몇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막강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생활은 1988년에서 1991년 까지의 활황을 체험하고 난 후 최근에는 중년 샐러리맨들의 해직사태, 부동산 가격의 폭락, 범죄의 증가, 정치적 무기력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국민답지 않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일본 회사들은 날이 갈수록 해외투자만을 늘리고 있으며, 노령자들의 수입도 줄고 있다고 한다. 권위 있는 사회학자들은 각종의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필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좋지만, 과의 등 지나친 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사회 전체의 순응주의가 워낙 강하여 후기 산업시대의 개인주의와 창의력에 있어 미국보다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같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산업시대에는 장점이 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놀기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과연 우리 사회는 몇십 년 뒤에 어떠할까?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해외투자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 경제의 앞날의 비전과 연관짓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느껴진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변화 특히,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분석, 이해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는 21세기가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서로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 중남미는 경제는 뒤쳐지는 게 사실이지만 고급예술, 총체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이 두드러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에 진출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이런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개인으로서나 기업으로서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2.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LG 전자가 브라질에 2,005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하여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복합 전자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삼성 전자도 브라질에 10억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전업계의 강자인 필립스와 경쟁하려고 한다고 한다.

현재, 멕시코에는 가전 3사를 비롯하여 현대 정공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하고 있으며 1993년말 현재, 약 38개 사가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1996년 올해, 약 4억 9천만 달러가 예상되고 대부분이 단독 출자이고 6개 기업이 합작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중남미의 경제 강국들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역규모가 큰 나라는 1995년에 약 760억달러를 수출한 멕시코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이 진출해있는 나라들은 중미와 카리브해의 소국들이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의 경우, 1993년 현재, 약 150개 사 정도가 가동중인데 봉제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투자 진출의 첫 번째 동기는 당연히 저임금을 찾아 온 것이며 둘째는 주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선적기일의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 미국의 쿼타 규제가 없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카리브지역 특혜 제도와 수출자유지대를 활용할 수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약 22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주업종은 물론 봉제업이다. 온두라스에는 약 28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봉제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남미에 사는 교민들의 중남미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대부분의 중남미에 사는 교민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중남미인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여유 있고 평화로운 사람들인가를 잘 체험하여 알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의 양식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사기꾼 등 문제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불법이민 등의 문제 때문에도 중남미 상당수 나라들의 비자 얻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교민들 중에는 무조건 돈만 버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시술 등의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한의사 등의 사례도 필자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헌신덕택에 그곳나라의 지도층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공식 외교채널의 정보취득 능력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남미 교민들 중 지도층 인사들도 중남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주 초보적이다. 따라서, 중남미에 진출하는 기업체들의 중역들은 그곳에서 오랜 체험으로 중남미인들을 이해하는 교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정보에 의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국하기 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남미 문화예술에 대한 독서라도 하고 중남미로 진출하는 것을 꼭 권하고 싶다.

3. 문제점 - 중남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현지 문화나 사정에 어둡다는 점에서, 중남미 뿐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보다 중남미는 우리에게 더욱 이질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다.

그런데, 필자가 구체적인 현지 기업의 실사를 하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자나 자료와 필자의 유학 체험만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대부분은 인사, 노무관리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오직 경영학적 방법만에 의존해 가시적인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잘못이라고 본다. 좀 더 중남미 자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현지 주재 직원들이나 본사의 간부급 사원들이 갖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영의 성공과 특히 한국의 이미지, 한국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헌묵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지만, 현재 대부분의 과견직원들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스페인어조차도 겨우 생활용어 몇 마디만을 익힌 채 떠나는 실정인 것 같다. 중남미 진출기업들이 인사, 노무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남미 나라들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 제도와 현실의 전체적 맥락 또는 배경이 되는 중남미 정치, 경제의 대략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면 1910년에 멕시코에서 불평등한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농민들의 봉기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 그후 '제도혁명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토지소유구조의 불평등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가톨릭 교회와도 사이가 벌어져 오랫동안 멕시코 정부는 바티칸과 국교를 단절할 정도로 전통적인 봉건적, 전근대적 체제와 결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59년의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 전반에 끼친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페인의 지배이후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적 유대는 강해 결론적으로 헌법 및 노동법체제에서 진보적 사고가 무척 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멕시코 연방 노동법의 서문을 보면 "멕시코 노동법의 정신은 단지 월급의 인상 및 근무시간의 축소 못지 않게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유리하게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는 정치적 의미의 헌법은 사유재산과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반면 사회적 의미의 헌법은 멕시코 헌법정신의 최고봉을 차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연방 노동법>의 서문, 뽀루아 출판사, 제 75판, 1995)

멕시코 헌법 제 123조는 노동법에 대한 규정인데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예: 가정부)등도 포괄한다. 노동시간은 최대 하루 8시간이다. 야간 작업의 경우는 7시간이다. 밤 10시 이후의 노동과 14살 미만의 어린이 노동은 금한다. 토요일은 휴무이다. 여성은 출산 전, 후 6주간의

휴가를 가진다. 수유기에는 하루에 두 시간씩 시간을 가진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고 임금교섭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강하다. 즉, 사용자, 노동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위원회가 노동자들 사이에 분배될 이익률을 결정한다. 초과근무수당은 100%이고 초과근무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해서 3일간 초과근무해서도 안 된다. 같은 수의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들과 정부대표 한 명으로 구성되는 [조정, 화해 위원회]가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사용자가 만일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근로계약은 종결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배상으로 3개월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노동자의 선택권에 따라 근로계약을 강제로 하거나 노동자에게 배상으로 3개월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서 노동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모욕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 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파업의 경우에는 1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가 이끌어왔던 노동자위주의 '대중인기주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남미가 노동자 권익을 생각하는 지역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가 우리보다 열등한 경제 후진국이라는 선입견만으로 이런 진보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법체계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잘되어있더라도 관리들에 대한 로비 등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이미지가 좋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진이외에 현지 파견 한국인 관리자들도 불필요하게 중남미 현지인들에 대해 '한국이, 한국적인 것이 최고다'라는 국수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은 한국의 기업문화, 사회적 관습이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되어있어 항상윗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지내다가 외국, 그것도 우리보다 일인당 GDP가 낮은 나라, 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한 나라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들 중남미 노동자들을 깔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은 중남미 사람들은 지나친 정도로 탈권위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고위직에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도 우리 나라처럼 소위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 일반사람들도 아는 사람끼리는 물론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비소를 짓고 농담도 주고받고 인사를 할 때는 이성끼리도 서로 끌어안고 가볍게 볼에 키스를 나누다든지, 남자들끼리도 악수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준다든지 친밀감을 항상 표시한다. 이런 이들에게 회사에서 지위가 높다거나 사용자라고 해서 권위적으로 엄숙하게 대했을 때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주말에는 가난하든 돈이 있든 친구들과하고 집에서 파티를 열어 음악과 술과 춤을 즐긴다든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하는 습관은 아주 강하다. 즉, 이들에게는 노동은 여가를 즐

기게 하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노동 그 자체는 고통으로 여기는 문화적 전통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인내와 근면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전통만을 옹고 강요했을 때 당연히 문화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해외 진출 기업의 문제는 곧 바로 우리 사회, 문화의 문제이며 그 뿌리 또한 몇 백년 이상 지속되어온 '양반, 상놈'의 차별의식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 해외 진출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아무리 현지어를 가르치고 현지인들의 문화, 관습 및 가치관, 사고 방식, 교육 수준 등을 가르치고 현지 진출 한국업체들 중에서 몇몇 성공사례를 배워 인사, 노무관리에 혁신을 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현지인들에게 한국, 한국인의 이미지가 새롭게 될 정도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쉽지 않은 문제이고 해외에서의 노력 못지 않게 국내에서의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캠페인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전체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시민교육에 있어 기업과 일차적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20대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사고 방식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을 비판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인들의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 무식한 편이다. 그 무식은 일반시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적 인사들도 심한 것이 안타깝다. 특히, 우리 경제나 사회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이렇게 잘못되면, 남미 같이 될 것이다....." 등의 표현을 만일 중남미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안다면 어떨까?

이렇게 된 데는 중남미에 대해 그 동안 언론매체 등이 피상적이고 편향한 보도나 흥미위주의 르포성 기사에 치중해온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 중남미가 외채가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경제성장에 실패했고 최근에 와서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낙후한 제 3세계의 대표적 지역 "으로 알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편 진보적 지식인들이 즐겨보는 매체에서는 멕시코, 칠레 등의 현대사의 독재와 학살, 민중탄압이라는 정보만을 주기적으로 전달하여 중남미를 어떤 고정관념만으로 바라보게 한다. 물론, 중남미 현대사의 독재와 관련된 사실전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남미 해석의 정보가 아쉽다는 뜻이다.

중남미인들의 삶의 방식 또는 문화에 대해 얘기하겠다. 우선, 중남미는 1492년에 콜롬버스가 발견 또는 발명한 뒤에 (원주민 문화를 훼손하고 파괴한 뒤에 중남미라고 한 것을 두고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비판적인 의미로 '발명'이라는 용어를 남미 지식인들이 쓰고 있음) 스페인인들 즉, 유럽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백지 상태의 황무지가 아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사실마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한다. 중남미에는 스페인의 정복 전에 천년이상

의 고도의 문화를 가졌던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비록 문자를 가지지 못했지만, 많은 구어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예: 페루의 '케추아어', 파라과이의 '과라니어') 또한, 중남미인들의 인종구성에는 원주민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혈인들이 중남미인들이고 원주민 문화에 대한 고고학, 인류학적 연구와 보존 및 자부심은 대단하고 문학, 미술 등 고급예술의 개성이 바로 이런 원주민 문화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사회에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는 스페인의 군대가 정복하기 전에 원주민 공동체가 광범하게 발달해 있었고 이런 제도를 스페인 제국은 '대농장제' 등 식민지 경영의 기본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중남미 원주민 문화는 우리의 원초적 문화처럼 상당히 주술적이고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지나친 비대화 등으로 순수한 공동체적식은 지연, 혈연, 가문, 가족 등 축소된 영역으로 왜곡되어왔고 특히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또다시 왜곡되어왔다면 중남미의 삶의 방식은 느슨한 변화를 겪었고 스페인 통치시대나 그후 현대에 와서도 중앙집권적 제도는 아주 약했고 지방분권적 경향이 강했다. 우리의 경우는 자랑스러운 고대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문화적 일관성이 제대로 유지되어오지 못했다면 중남미 지식인들은 상상력과 비판정신을 기조로 하여 오히려 문화적 일관성을 힘있게 표현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 중남미 예술 각 장르의 거장들에게는 '초현실주의적'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지만 유럽의 아방가르드 운동인 초현실주의와는 개성이나 표현형식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혁명의 시작을 멀리 유럽의 파리에서 지켜본 디에고 리베라는 유럽미술의 전통과 아방가르드를 전부 공부한 뒤에 유럽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유명한 벽화운동을 펼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디에고 리베라 개인의 독창성 덕택이기도 하지만 원주민 문화를 재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중남미 지식인,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문화적 인식의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까지의 유럽소설들이 보여주었던 '일직선적 시간관'을 깨트린 것에 의해 유럽에 충격과 붐을 조성했던 1960년대 이후의 중남미 현대소설가들도 대부분 자기나라를 떠나서 살았으며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들의 문화, 사회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사람들이다. 무엇보다도 지식인의 사명에 대해 민감하면서 지식인은 항상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비판적 정신을 날카롭게 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거리효과'의 미학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직선적인 현실참여를 주장하던 전세대와 달리 예술적 도그마를 갖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긴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중남미인들이 우리와 비교해 훨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이다. 지식인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 비극적이고 고통스런 현대사를 살아오면서도 중남미인들이 '비극적 상황 속의 낙천성'을 일상의 삶의 양식에서 보인다고 하는 언술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직관적으로 암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통문화의 재해석'은 우리와 전혀 다른 유럽 등의 문화적 흐름과 표현에 정통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사회지도층 전반의 비판적 관심이 큰 저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명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같이 순수한 혈통으로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하게 보이는 혼혈이 심화되었고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비례하여 '중남미는 서로 이질적이고 충돌하는 문화들이 서로 뒤섞여 복잡한 경계'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해체되는 탈현대사회에서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여유와 문화적 힘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에 브라질이 우리처럼 IMF구제금융을 수백 억 달러씩 받으면서도 커다란 위기감이나 초조감 없이 당당하게 선진국이나 IMF와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한가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은 중남미는 19세기초 스페인에서 독립하면서 정치사상의 기초를 전부 프랑스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때부터 프랑스적 합리주의, 비판정신이 정착된 것은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어왔지만 중남미가 그후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문화적 힘이 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프랑스적인 합리주의, 비판정신의 깊은 이해에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중남미에 압도적이었지만 이들이 문화적으로까지 미국에 종속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결국, 중남미는 거의 2백여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 문제에 깊이 진착해온 민족들이고 다양성과 동질성, 이성과 탈현대의 병행적 공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최근 구호로만 떠돌어대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나름대로 체화 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의 1백5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적 근대화' 문제에만 몰두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남미 문화인, 지식인들에게 원주민의 전통문화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화로만 남아있고 식민시대이후 그들에게 전통문화는 바로 '스페인 문화'였는데도 독립이후 19세기말부터 이 전통문화를 전복하고 비판하는 문화적 반란을 피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남미의 '모더니즘 운동'이다. 창조적 파괴가 없이 문화적 진보가 이뤄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나는 시로서 산다. 아름다움, 힘, 우아함, 돈, 사치, 키스, 음악을 사랑한다. 나는 예술적 인간일 뿐이다." 이 같은 모더니즘 신조는 사회의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

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19세기말에 등장한 시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들은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직업적인 시인이었다. 둘째,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해 비판을 피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시인은 니카라과의 루벤 다리오이다. 그는 젊을 적에 특히 당시 프랑스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었고 모더니즘이라는 명칭도 그가 붙였다. 이들의 목적은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하는데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도 우리와 차이나는 점이 있다. 우리 문학의 경우는 문학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실험적 형식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세계문학의 큰 흐름중의 하나를 형성하는 중남미 현대문학의 독창성이 살아있고 1960년대 후반, 서구 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의 '학생혁명'이 아직까지도 서구의 패러다임의 반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들 중남미 지성들은 같은 시기에 해방신학과 종속이론 등 그 이론의 타당성의 여부는 차치하고 세계 학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의 독창성을 보여주었으며, 현대, 유럽이 대규모의 지역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다면, 이들 중남미도 NAFTA, MERCOSUR 등을 통해 큰 스케일의 지역통합의 오랜 비전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요즘은 번역이 활발한 덕택에 우리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보르헤스가 서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류가 된다는 점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논의를 좁혀, 우리 천주교회가 최근 열정을 바치고 있는 '소공동체 운동'이나 '새로운 복음화'의 실체와 정신 또한 중남미가 바로 원류인 것이고, 최근 4.11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 등 민주세력의 좌절을 '탈근대 또는 탈현대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악령'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류가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를 필두로 한 중남미 현대문학에 있으며 이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은 이상과 합리성의 포기가 아니라 그 '비판정신'의 새로운 폭발인 것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건강성을 담보로 한 유토피아의 강력한 견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말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중남미의 문화는 서구 현대문화 즉, 프랑스 계몽주의를 우리보다 약 200년 전에 받아들였지만 결코 서구문화에 대해 맹목적 추종을 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 나라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일 뽀스티노'라는 영화에 나오는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대시인 빠블로 네루다였고 그와 우정을 나누는 순수하고 소박하고 가난하지만 영성적인 삶을 살은 보잘 것 없는 이태리의 한 우체부의 모습이 평범한 중남미 서민들의 이미지와 통한다고 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과장일까? 직접 한번, 중남미의 도시나 시골, 야성적인 자연을 여행한다면 필자의 이 같은 말에 상당부분 공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와 IMF 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도 외자

유치에 폐쇄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외자유치에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와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외국인, 외국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자국문화 우월주의적 태도를 어서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의 외자유치 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시에도 그곳의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외국문화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우리식으로만 갖다 대려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멕시코 등 중남미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들의 종속적 경제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동화해서 중남미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들의 인간적으로 편안한 문화적 매력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경제성장의 통계 목표에 일희일비하면서 GDP가 성장하고 외국 언론에서의 경제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곧 바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착각 속에 사는 신화를 버리고 일상생활이 인간적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 모든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더라도 매력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과 생명윤리

이대훈 (영국 브리프도대 평화학 연구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노자] 25장

가끔씩 이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가를 느끼면서 오싹할 때가 있다. 눈부신 문명의 시대 20세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없애버렸을까? 인류는 6천5백만 년 전 공룡 멸종시대를 제외하고는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생명체를 20세기에 멸종시켰다. 대부분 자연적인 멸종이 아니라 인위적인 멸종이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반면 지난 50년 사이에 사람들은 인구를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 50년 안에 또 두 배로 늘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0년경에 지구상 생명체의 약 20%가 멸종된다고 한다. 이미 가축은 상당수가 사라져서 30%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사람이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근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이 간간히 쓰인다. 지구촌에 온갖 동식물과 기타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서로 얽혀 살고 있고 그런 얽혀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다는 뜻이다. 이 말뜻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괜히 어려운 말을 쓰기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래저래 “자연(自然)스럽게” 살자는 뜻에 불과할 텐데 하는 생각에서였다. 아마 대다수 민족들은 산업화되기 이전에 자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삶이 기본이었을 것이다. 농사를 보면 그렇다. 어디에서든 전통 농법에서는 한두 가지 종자만 키우면 일한다. 수 만년 동안 농민들이 해충과 질병, 환경변화에 맞서 꾸준히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면서 이들간의 접종, 교배를 통해 품종 개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농사꾼들은 8천년 전부터 쌀을 재배하면서 약 10만 가지의 품종을 개

발해냈다. 각 지역의 기후와 조건에 맞게끔 개발된 것들이다. 이른바 생물다양성 그 자체가 농업, 축산업의 원리이자 기초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멸종은 운이 나쁜 일부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생존, 생태계 유지의 기반이 무너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금 자세히 따져 보자. 종자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쌀, 콩, 밀, 옥수수, 돼지, 닭과 같은 친숙한 종자들이 원래 자연으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유용한 종자들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종자개량이 누적되어 얻어진 것이다 - 농민들은 다 아는 얘기다. 깨끗한 실험실을 거치지 않았을 뿐 그 어떤 과학보다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도 누구 하나 특별히 흠내지 않고도.

그런데 요새 종자 갖고 큰 장사를 해먹는 미국을 보면 세계 최대 곡물생산 및 수출국이 지만 수출곡물 중에서 해바라기씨를 제외하면 토산품은 하나도 없다.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15개 주요 곡물은 모두 다른 나라가 원산지인 유전자를 가져다가 “과학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감자, 토마토는 중남미에서 가져온 것이며, 쌀과 사탕수수는 인도차이나에서, 콩과 오렌지는 중국에서, 밀과 보리, 사과는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또 다른 나라 종자까지 개발해서 그것만 심으면 된다고 큰소리치며 팔아먹는다. 잘 나가는 종자를 골라 심다보면 큰 농사, 긴 농사는 망친다. “우량 품종의 해악성”은 최근에야 조금씩 인식되고 있다. 당하는 건 ‘시장 경쟁력’ 없는 소농들이다.

미국은 붕이 김 선달도 아니면서 어떻게 남의 것, 또는 모두의 것을 가지고 그리 큰 장사를 해먹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미국의 식물 종자 특허제도에 있다. 이 법 때문에 특허가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 기업이 일찌감치 특허 출원한 종자를 쓰거나 팔면 불법행위가 된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같은 사람이 무관심한 사이에 미국은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유용한 종자는 거의 모두 착실하게 거둬드려 특허를 내는 치밀한 준비과정을 끝냈다. 잘못하면 법씨 한톨 심을 때도 로얄티를 내야한다. 1999년에 생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WTO에서 합의되면 미국은 종자전쟁에서 단 한발의 총성도 없이 전세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과거 그 어떤 식민지도 이렇게 쉽게 장악된 적은 없었다.

요사이 이런 저런 언론사에서 자사의 구린대를 가리느라고 애꿎은 환경문제를 잘 거들먹거리다. 언론의 알팍한 보도로 어린 학생들도 환경 문제 하면 호랑이가 사라지고 고래가 없어지는 문제를 곧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쓰레기나 나쁜 사냥꾼 얘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어디 생태계 문제가 그리 단순한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서방의 거대 기업들은 지금 생명체를 둘러싼 장사노름에 정신이 나간 상태다.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어려운 말로, “생명공학 특허”, “생명체 지적재산권”, “유전정보 지적재산권” 등이 있는데 이런 난해한 개념을 동원해서 잇속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를 사람의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것을 “기업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돈벌이에 쓸모가 있기 때문. 현재 터지는 사건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다.

사례 1) 심황(深黃, trumeric)은 오랫동안 인도의 전통의료술에서 이용되던 약초다. 뿌리에 상처의 회복을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현재 미국 미시시피 대학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특허제도에 따라 미시시피 대학은 “심황을 사용한 상처 치료 방법”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인도산업과학협회가 이 특허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례 2) 파리에 위치한 파스퇴르 연구소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기관이다. 1991년 파스퇴르 연구소는 에이즈 백신의 항원의 재료가 되는 HIV-1 바이러스의 변종을 미국에 특허출원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HIV-1 바이러스의 원재료는 1986년 아프리카 가봉인의 피에서 채취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인 에이즈 환자로부터 얻는 세포에 기초한 에이즈 백신 특허가 여러 종 존재한다. 모두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 소유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따른다. 두 번째 사례에서 피와 세포를 제공한 아프리카인들은 백신 특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채취를 허용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얻어진 치료법이 대부분의 아프리카인 에이즈 환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현재 에이즈 백신 개발사업의 순 이익률은 제조단계에서만 70%이며 판매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다. 전세계 에이즈 환자 2천2백만 명 중에 절반이 아프리카인인데, 한 사람이 3가지 약을 투입하는 치료를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의 30년 치 소득을 치료비로 내야 한다. 무언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다.

앞뒤가 잘 맞는 것은 선진국 대기업의 회계장부와 주주들의 지갑일 것이다. 기업의 회계장부와 주주들의 지갑을 위해서 지구촌 생명체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하루하루 생명체에 대한 소유권을 치밀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특허제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슈퍼마켓에 상품이 많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듯이 기업의 눈에 생물다양성은 장사의 밑천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명체 특허권을 둘러싼 싸움이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로 미국(미국은 생명체 특허제를 가장 앞서 도입한 나라이며 현재 사람의 신체 기관에 대한 특허제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다 - 아마도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이나 서유럽을 대상으로 개도국 농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이 전개하는 소송이나 여론 싸움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

십 년에 걸쳐 일어날 큰 전쟁의 작은 시작일 뿐이다.

미국이 버르는 대로 내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생명체 지적재산권이 통과되면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들관과 숲에서, 또는 다른 인종의 몸에서 귀중한 유전자 자원을 채취한 다음 자기 나라에 특허를 낼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농민단체가 말했듯이 “생명 왕국을 최고 입찰자에게 팔아버리는 경매” 또는 “신종 해적질”이 국제적으로 합법화된다. 그 때부터 생명체의 핵심인 유전자는 시장을 위한 흔한 상품이 되고 유용한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발명가”가 된다. 발명한 것은 남이 공짜로 사용하면 안되고 “로얄티”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생명체를 소유하면 이렇게 불로소득이 보장된다. 불로소득을 위해서 유전자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종(인간)에 귀속된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이제 생명은 인간이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소유하고 관리하는 문제로 되어 지구촌 생명의 역사상 일대 전기를 맞이했다. 생명체까지 넘보는 소유권의 극단적인 형태인 특허제도 - 그 핵심은 시장 이윤을 통해서 인간의 동기를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 깊은 윤리적, 문명적 긴장이 존재한다. 생명, 이윤, 소유, 시장에 관한 사상과 문명이 교차한다. 생명체 특허 논리는 ‘등록’되지 않은 ‘당신들의 농업, 당신들의 창작, 당신들의 지혜, 당신들의 과거’가 열등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래서 우월한 누군가가 생태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장이 우월한 누군가를 선택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다. 과연 누가 생명을 관리할 것인가? 시민운동과, 종교계, 철학자들이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이다.

사례발표

한국까르푸 현황 및 노동조합 활동

1. (주)한국까르푸 현황

하이퍼마켓이란?

슈퍼마켓과 할인 판매점, 창고 소매업 등의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저렴한 가격과 무료주차 그리고 식품과 비식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업태로 유럽에 발달해 있다. 까르푸는 1963년 이 하이퍼마켓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분야를 개척해 세계 소매 유통업체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까르푸 설립 94년 3월 8일

점포 : 중동점 (1호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 96. 7. 30

일산점 (2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 96. 11. 6

둔산점 (3호점, 대전시 둔산) 96. 11. 7

계산점 (4호점, 인천시 계산동) 98.

종업원 수 : 1,101명 (97년 12월 기준)

○ 자본금 : 4,816억원(약 370,000,000 US\$) (97년 12월 말 기준)

○ 대표이사 : 프랑코 비텍

지역1본부장 미셸 라무

지역2본부장 디디에르 카스탱(Didier Castaing)

○ 연도별 매출 및 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985		30	-1000
1996	64,682	1,109	-2,105
1997	275,199	7,245	9,645
	(US\$ 211,700,000)		(US\$ 7,420,000)

- 우리 나라에 진출해 영업을 시작한지 2년만에 흑자로 전환
- 특유의 비밀경영에 의해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내 할인점의 매출이 올해 30~40%의 신장세임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을 남겼으리라 예측함

○ 향후 계획

- 12월에 울산, 분당, 안양에 추가 개점 예정
- 99년 초까지 광주, 대구, 인천에 점포 개설 예정
- 현재까지의 투자액 포함 총 6억8천만 US\$를 투자할 예정이며, 2002년까지 20개 점포를 개설할 예정

2. 까르푸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1997년 4월 2일 일산점에서 박현삼(레스토랑 근무)씨를 위원장으로 노동조합 결성

6월17일 1차 교섭 - 조합활동 보장 요구

7월 2일 상업연맹 가입

1997년 9월 5일 둔산점에서 국제호씨를 중심으로 까르푸노동조합 둔산지부 결성

결성당시 조합원 141명

10월 1일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 위임

12월10일 5차 교섭

노조의 단협 요구에 대한 답변 주겠다는 약속 어기고 교섭을 원점으로 돌림

12월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12월23일 파업돌입 매장 앞 연대집회 (둔산지부, 40여명 참가)

~ 12월30일 둔산지부 매장 앞 연대집회

98년 1월 4일 휴게실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합활동을 홍보하던 조합간부를 집단폭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어냄 (국제호 지부장 전치3주 부상)

1월23일 둔산점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 → 교섭결과 파업 중단

- 부당하게 전직된 김영삼씨 최대 5주안에 복직
- 부당노동행위 중지, 35일간 진행된 파업 중지 등 합의
- 2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10일에 한번 교섭 진행기로 합의
- 3월29일 까르푸의 외화 밀반출에 대한 신문기사와 회사의 해명광고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노조 게시판 철거
- 6월 2월 교섭을 재개기로 합의한 이래 약 10일에 한번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이 진행되었으나 단 한 조항도 합의하지 못함
- 6월19일 FIET대표단(FIET의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 Apro-Fiet 의장, 사무총장,
김형근 상업연맹위원장 등) 까르푸 방문
 -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 프로그램 제시

- (1) 상호전쟁을 중지, 비방 말고 노조탄압 말라
대립적 관계를 벗자 Make a fresh start
- (2) 교육을 진행하자
3~4개월 내에 프랑스 관리자, 노조, 한국관리자들, 연맹이 참가하는 한국까르
푸에서 동반자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갖자
- (3)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partnership을 형성하기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
자
- (4) 3개월 동안 협상은 중단하고(고충처리, 선진활동은 계속한다)
- (5) 문제를 풀기 위해 99년 1월부터 단체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단체협 요구안의 조항 수를 줄인다)

- 10월 위의 제안에 까르푸 회사는 - 합동세미나는 거부, 세미나 개최시 참가하겠
다
- 11월27일 국제세미나 개최
'다국적 기업에서 노사관계 길 찾기' - 한국까르푸에서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 프랑스까르푸노조 간부, 노동자의 힘(FO, 프랑스총연합단체 중 하나) 간
부 참가

3. 한국까르푸의 노동조합 활동 탄압사례

<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봉쇄 >

1. 노동조합 게시판 철거

98년 3월 27일 한국까르푸의 외화 밀반출 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2,600만 달러 밀반출, 2,000년까지 11,500만 달러 밀반출 계획)

3월 28일 밀반출에 대한 신문기사와 회사의 반박광고를 노조 게시판에 게재

3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 철거

- 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노동조합 관할의 시설물을 회사 임
의로 철거하는 만행 저지름

2. 홍보물 배포를 이유로 징계

노동조합에서 홍보물을 발행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

3. 우편물 사전 개봉

97년4월 노조결성 후 노동조합에 발송되어오는 우편물들을 회사가 모두 사전에 개봉했
었음

- 노조에서 여러 차례 항의해 시정됨

< 노동조합 탈퇴 압력 >

1. 조합 탈퇴서를 회사에서 수거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가 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회사측이 탈퇴서를 강요하고 수
거해 조합에 보냄

2. 임금인상, 승진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협박

3. 부서 이동

97년 10월 둔산지부 제빵 기술자(김영삼, 노동조합 고문)를 생선 부서로 발령

4. 근무시간 변동, 부서 이동 협박, 탈퇴강요

- 주부사원들에게 근무할 수 없는 시간대로 변동,

- 레스토랑의 경우 노조 탈퇴를 안 하면 제일 힘든 세척실로 보내겠다고 협박

- 수납 부서(캐서)는 하루종일 서서 손님을 맞아야 하고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기화
로 타부서로 옮겨준다면 탈퇴 요구

< 정상적인 교섭 회피, 통상적인 노조활동 보장 안 함 >

1. 회사와 교섭을 하기 위한 근무시간 중 교섭시간 할애 등 활동보장 안 해줌

(한국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교섭위원에게 근무시간 중 활동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2. 교섭 지연, 회피

97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을
단 한 조항도 합의 못함, 회사측은 합리적인 교섭보다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교섭
에 한치의 발전도 없음

3. 기본적인 활동공간이 사무실, 장소 사용 불인정

4. 까르푸 노동조합 현황

일산 : 결성당시 조합원수는 115명이었으나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20명까지 줄었고,

- 현재 남은 인원 50여명 그러나 회사측에 조합원 명단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그 동안 박현삼 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회사의 극심한 노동조합 탄압을 경험했고
- 회사의 조합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은 현 조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해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공개를 못하고 있음

둔산 : 조합원 남지 않음

- 둔산 지부장인 국제호가 34일간 이어졌던 둔산점의 파업 이후에도 계속되는 회사의 압력과 조합원에 대한 집요한 탄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호하지 못함을 비판, 회사를 떠나버림
- 남은 조합원들도 회사가 사소한 문제로 해고하는 방식의 탄압을 계속 동원하자 조합을 포기해 버렸음

4. 까르푸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들

< 인력 관리와 관련해 >

1. 손쉬운 해고

'직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Go Home'이다. 새로 배치되어 일에 서투르거나, 매출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인원을 줄어버린다' (직원들 인터뷰 내용)

- 장기적인 전망에 의한 인원 운용, 인력 배치가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하여 매출에 바로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인원조정을 하고, 이는 흔히 해고(나가라고 강요하여 사직서를 쓰게 하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경우 부서 이동, 근무시간 변동으로 직장 다니기 어려워짐) 라는 방식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곧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어 버림
- 또한 직원들이 까르푸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됨
- 이영희 사례 (둔산점, 34일간 파업 참가, 노동조합 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해고) 절도 혐의로 해고

회사는 이영희에게 절도의 혐의를 씌웠으나 이영희의 부주의였음(약 1,000원(70 cent) 짜리 편을 매장에서 파는 물건인줄 모르고 상식불로 옷에 꼽고 다녔고, 회사의 지적을 받고 즉시 원위치에 돌려놓았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판결직전 회사와 임금 등을 합의하고 사직서 제출

2. 비정규직의 양산

- 까르푸는 우리 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왔고, 한 개의 점포를 열 때마다 500명 고용효과가 있다며 자랑하고 있음
 - 실제 용역, 하청으로 거느린 인원까지 포함해 400여명을 고용하나, 6개월 정도 후면 파트타임 캐셔까지 포함해 200명~250명 내외의 인원만이 남고 퇴사, 부족한 인원을 대부분 신규채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환시킴
 - 고용효과를 자랑하나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이퍼마켓의 설립을 중지하도록 했음
- 이는 신규고용효과가 잇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할인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소매점의 몰락을 불러와 고용확대에 역작용을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3. 민족적 감정

- 최고위 경영진, 각 점의 점장 전원 및 부장 일부가 프랑스인 임
- 한국의 노동자들은 인원부족으로 휴일 잡기가 어렵거나, 특히 대리급 사원들은 하루 13~15시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무수당 조차 없음
- 회사는 사유와 노동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인 관리자들은 프랑스의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음

디디에르 카스탱(Didier Castaing) 지역2본부장의 발언

교섭도중 노동조합이 프랑스의 노조파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는 '자신이 프랑스의 트럭운전사였다면 파업의 지도자가 돼 있었을 것'이라고 함

→ 프랑스에서의 노동권과 그 행사와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줌

< 그 외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 들 >

1. 공정거래법 위반

9월22일 월마트(한국마크로), E-mart, LG마트 등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이나 입점업체들과 거래하면서 공급계약을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적발됨

10월 동남유통 박만기, 까르푸 공정거래위에 실명 고소(한겨레신문 10월15일자)

행사광고비, 아르바이트 지원비, 일방적인 납품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10월21일 본사 35주년 기념세일과 관련해 광고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협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불공정행위를 벌임 혐의 (조선일보 등 보도)

2. 끊임없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

-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이윤을 프랑스로 보낸다는 이유로 중동, 일산, 둔산 등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짐
- 이와 함께 외국 유통기업이라는 경계심이 작용해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킴
-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점 개설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한국산 제조 상품을 세계 까르푸 매장에 진열하는 행사
- 지역사회에 기부금 등 이윤 환원을 위한 행사 등 진행하나
- 까르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줄어들지 않음

3. 외화 밀반출 혐의 - 회사는 국제사기에 당했다며 고소

- 98년 3월27일 외화 밀반출 혐의로 일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신문기사 참조) 밀반출 액수는 340억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450억 원에 달하고 한국이 IMF로 외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까르푸와 타협을 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있다고 함. 검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빼돌린 돈은 홍콩을 거쳐 스위스의 은행으로 입금되었고, 까르푸는 2000년까지 1500억 원을 빼돌릴 계획이었다고 함
- 98년 3월27일 대구에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 혐의(토지거래 신고구역내 땅을 신고 없이 매매 계약)로 경찰에 고발됨
- 까르푸는 대구시 검사동 지역의 땅을 97년 11월 김 모씨로부터 173억 원에 매입을 했으나, 김 모씨는 97년 3월에 이 땅을 임 모씨 등 토지 소유주 7명으로부터 61억에 매입했음 6개월만에 땅값이 3배로 뛰었고 까르푸는 이 과정에서 비자금음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8월 28일 까르푸는 이 사건이 '국내에 신규점포 개설부지 8곳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과다 계산해 차액을 챙겨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4백만 달러(340억 원 상당)를 횡령했으며 이 사건에는 한국, 홍콩,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4개국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
- 초기 사건발생당시 이 건을 무마하기 위해 까르푸측에서 밀반출 된 외화 전액을 한

국에 돌려보내고, 추가 투자기로 약속을 했다는 보도도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함

4. 부동산 구입관련 제소

- 10월18일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사인산업(주)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문컨설팅 수수료 3억8백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법에 제소
- 94년 부동산개발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일산과 대전 둔산 부지를 매입해주는 용역을 제공했으나 토지매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

5. 현금거래

- 월마트(한국 마크로)와 함께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음
- 미국, 프랑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거래 가능
-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차원에서 실태파악
-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라고 회사는 변명하나, 국내의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있음

【 구자운 등에 대한 집단 해고 】

- 구자운 : 대리로 입사, 인천 계산점 근무, 수습기간 중 해고
- △ 98년 8월 대리급 사원 모집 광고를 내고 188명 채용
- △ 회사는 면접, 교육, 근무를 대리 직급에 걸맞게 시킴
- △ 인천 계산점에 배치된 28명중 10명만 대리로 발령
- △ 12명에게는 퇴사강요 - 8명은 사직서 쓰고 퇴사, 4명은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 중)
- 해고사유 - 특정한 사유를 대지 않고 개인면담 후 '부적합하다'며
- △ 해고 후 확인한 결과 매니저 고용계약이 아니라 일반 사원으로 고용계약을 했음이 밝혀짐

별첨 자료 - 해외단신

성년 루마니아 대우 로대 노동자들,
한국 대우 김우중 회장과 교섭요구

대우는 국내 해외 투자기업 중 가장 먼저 96년 하반기 세계 경영 2000년 비전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설립된 해외법인 6백 개를 1천 개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과 더불어 97년 3월 김우중 회장은 전 세계 15개 거점지역에(Mini) 대우 그룹을 세우라고 지시 한 바 있다.

그러나 발빠른 해외투자로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는 회사측의 자부심 뒤에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현지화 문제점들이 마치 쓰러지는 사선거처럼 아슬아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국내홍보는 계획의 화려함만큼 완벽하게 보이지만 국내 자본의 현지화 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아는 이들에게 대우의 해외투자 전략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우측 홍보를 보면 현지고용인들과 '함께 잘살기'를 위해 완전한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세계의 다국적 공장으로서의 대우의 변명은 2000년이 되면 최고의 국제적 기업으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 것인가?

현재 대우 해외기업 중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받고있는 지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이다. 그런데 그 곳의 루마니아 공장에 고용된 현지인들과 회사측 사이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 순박하고 좋은데 경험이 없다?

화려한 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소재 대우 로대공장 노동조합은 그 동안 현지 대우 회사측과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인정문제들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 2월 한국으로 들어와 김우중 그룹회장과 직접 협상하기를 원하는 서신을 세계급속연맹을 통하여 한국급속연맹 앞으로 보냈다.

루마니아 노동자들은 대우가 관리자들을 동원 '가족신문'이라는 사보를 통해 노동조합과 지도부를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한다. 회사측 홍보대로 이들은 이러한 회사측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다. 경험이 없으므로 한국식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대우측의 숨겨진 태도는 급기야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던 노동조합위원장이 한국인 사장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갔고 회사측은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루마니아의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1/10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들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이다. 회사측의 이런 손해배상청구

는 현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자명하다. 세계화로 고용의 기회는 제공되어도 점점 궁핍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노무관리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다. 태어나서 대우에 고용되기 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태이라는 먼 나라까지 회장과 담판을 위해 날아오겠다는 이들 삶은 절박함으로 가득하다. 대우그룹은 화려한 세계화 홍보 뒤에 숨겨진 우울한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높은 노동강도의 유지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사측에 대한 현지 고용인들의 우려와 두려움은 대우공장을 나가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로서 영원히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RODAE자동차공장(루마니아)

▶연혁

- '77.프랑스 씨트로엥과 합장(Automobile Craiova S.A)
- '91 씨트로엥과 합작관계 청산, 국가자본으로 독자 경영
- '94.1 대우와 합작투자계약 체결
- '94.11 RODAE Automobile S.A. 설립 및 기념식
- '96.3 공장 준공식, 씨에로 모델 양산

▶자본금 : 3억 6백만 달러(대우지분 51%)

▶소재지 : 부카레슈티 서쪽 180km 떨어진 남부지방의 크라이오바 시

▶종업원 : 4,300명

▶생산시설 : 총 30만평 부지에 승용차 10만대/년(씨에로)

▶판매망 : 전국 43개 딜러판매망

▶노동자 기술연수

- 목적 : 고효율 대량생산체제 조기정착, 전문 기술인력 양성
- 대상 : 로대 노동자 및 엔지니어 총 880명
- 내용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현장라인 실습(OJT)

▶향후 계획

- '98년까지 승용차 20만대/년 생산구축
- 20만대 규모 엔진/트랜스엑슬 생산공장 추가 건설

강철회사 사유화, 노동자 동요와 스리랑카 정부의 억압

스리랑카 정부는 일년전 대대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 아래 강철회사 사유화 위한 협

상에 들어갔다. 강철회사는 그 가치가 20억Rs로 평가되었으나 8억 4천만Rs수준에서 매각되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지난 몇 주 동안 캠페인을 했다. 여, 야당 의원들도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지에 관해 규명하기 위해 의회에서 토론 또는 선별 위원회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1996년 12월10일 PERC 몇몇 의원과 함께 한국기업 대표들이 인도가 이루어지기로 한 10일 강철회사 건물에 도착했다. 노동자들은 건물을 에워싸며 항의를 시작했다. 그 때 건물주변에 배치된 100명의 경찰관중 한 명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노동자를 위협했고 이에 대해 노동자로부터 즉각적인 항의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과 노동자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경찰, 노동자 대표들은 질서유지를 위한 협상을 했다.

12월11일과 12일 약 인도계약을 막기 위한 1200명의 노동자와 1000명 정도의 경찰이 건물 내부에서 대치하고 있고 경찰에 의해 구타, 연행된 노동자들은 법원에 인도된 상태이다. 노동자들은 국가자산의 낮은 매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전에도 이와 같은 탄압이 가해졌으며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6년 12월)

파업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날 것을 고려중인 한국회사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약 280개의 한국 합작벤처 회사들이 계속되는 노동쟁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인협회는, 최근의 파업이 노동중심의 현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정부가 책정한 수준의 임금 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지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노동쟁의가 최근 몇 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중국이 잠정적 기업이 전국으로 적격이라고 꼽고 있다.(97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체포되고, 부상당하고, 해고된 노동자들

지난 97년 7월,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지역 다카에서는 한국기업 '영원(Youngone)공장에서 9명의 노동자들이 투옥되었고, 300명이 부상당했으며, 97명이 해고되었다고 현지신문이 보도했다. 영원은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생산업체로써, 방글라데시에만 7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며

곧 2개의 공장을 더 가동시킬 것이다. 수출자유지역 치타공에서 영원은 1993년 이 지역 최대의 공장을 가동시켰다.

이 날의 사고는 노동자들이 이미 투옥된 동료 2명의 석방과 회사에 대한 11개의 시정항목을 요구하다가 일어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미처 요구사항을 다 발표하기도 전에 무장경찰들에게 공격당했다. 이 지역의 "깨끗한 옷입기 운동 (Clean Clothes Campaign)" 회원들은 영원이 평소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전하고 있다. 깨끗한 옷 회원들은 영원의 노동자 인권탄압과 부적절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각국의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97년 7월)

온두라스 진출 한국기업 기미통상 노조결성 방해

기미 노동자들은 96년 가을, 회사가 6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 파업을 전개한 후 6개월간의 냉각기간을 회사와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해고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복직, 노조결성권 인정, 노조지도부와 회사 대표간의 정기적 회의 개최"였다. 이에 노동자측은 노조설립신고를 6개월 보유하기로 하였고 6개월 후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냉각기간동안 주요 활동가를 해고하였고 노조와의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노조는 갈등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자제하고 노동자복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노사화해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냉각기간이 종료시점이 97년 4월 12일이 다가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조를 재결성하였다. 지금까지 가행 된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체인원 중 260여명이 노조에 재가입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어용노조결성에 나섰다. 전문가를 작업장 안으로 들여보내 노동자들에게 어용노조에 가입을 강요하였다. 반장 등의 감독관들도 노동자들에게 가입압력을 행사하였다. 냉각기간 종료를 며칠 앞두고 회사는 노조 결성 추진대표들에게 회동을 요청하여 노조인정 등의 4월 15일 합의문을 작성을 위한 회의를 4월 15일에 가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합의문 논의를 제쳐놓고 몇 명의 노동자들을 회의실로 들어오게 하여 반노조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이에 노동자 측 변호사는 회사측이 합의의 내용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 전 노조결성 관련서류를 받은 노동부 대표에게 노조결성을 추진하려 한다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회사측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온두라스 노동법 517조에 의해 노조 결성 의도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식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노조 결성과 법적 인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은 해고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대표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이 회의에서 노조결성의도를 통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에 통보하는 것

을 거부하였다.

회사측은 다시 소수의 지지자들과 관리직 사원, 반장 등을 모아 노동자들에게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가입을 거부하였다. 노동자들이 점심을 마치고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회사측 사람들이 어용노조에 가입 서명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출입을 막았다. 노동자들의 거부가 2시간 이상 이어지자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풀었다.

다음날 노조 임원들은 기미 회사 대표에게 노조가입자 명단을 제출하며 노조결성 의도를 통보하였다.

(97년 4월, 자료제공: 미국 섬유노련)

심양, 나이키 하청업체 구타 관리인 기소 후 사건들

97년 2월,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작업을 배치 받지 못해 생산라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재평가 대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여 작업중단을 단행했다.

CU Chi지역의 노동연합의 조정을 통해 작업자의실수가 아닌 상태에서 재평가를 취소하고 이들 51명의 노동자를 복직시키도록 결정하였다.

97년 4월 1,454명의 노동자들은 노동계약에 따른 임금과 위험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재파업을 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 75%에 대해 5%임금인상유지에 동의하고 작업은 재개됐다.

멕시코 한영(현대 정공 협력 업체)노동자들, 민주 노조 투쟁

97년 10월 6일, 선거이전 상황

한영공장 120명 중 일부 노동자들이 회사측이 헌법에 명시된 이익 배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6월 2일 작업 중단을 시작했다. 회사는 매 5월 노동자들에게 판매 이익의 10%를 분배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보너스 지급으로 대신했다. 노동자들은 이 급료의 인상과 멕시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 30%의 임금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출한 노동조합을 원하고 있다. 티후아나 지역 자유무역 지대의 기업 중 80%정도가 CROM으로 알려진 정부와 연계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이 노조는 노동자들

이 선출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6월 2-3일 멕시코 한영 노동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며 일시 파업에 돌입했다.

- 회사측은 노동자들이 선택한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승인
- 공장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과 기구 공급
- 멕시코 노동법에 의거, 회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익금 분배

회사측은 노동자 대표단과 협상 과정에서 위의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한 후 며칠이 지나자 합의 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임무를 띤 사람을 고용하고 핵심 활동가 3명을 해고하였다. 공공연하게 회사측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회유 탄압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이 동요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CROM에 불만, 자주적 노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측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인 '화해중재위원회(JNCA)'등 정부 기관 등에 대항하여 완강히 싸워야 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화해중재위원회(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는 한영 노동자들의 투쟁과 여타의 노동문제와 관련 회사측과 교묘히 결탁하여 있는 반노동자적인 어용기관이다.

따라서 만약 한영의 노동자들이 협상에서 승리한 후 자신들의 자주적 노조를 설립한다면 이것은 멕시코 자유무역 지대의 역사상 처음으로 관변노조인 CROM으로부터 독립적인 최초의 노조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일이다.

10월 6일 선거 과정과 결과

마침내 역사적인 투표시간이 다가왔다.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노동자들은 한 명씩 투표함으로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한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어느 조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선거가 거의 다 끝날 무렵, 대기행렬의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정체불명의 무리 떼가 나타나 자신들도 투표를 하겠다고 하자 긴장이 감돌았다. 한영 노동자들은 이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며 또한 그 동안 자신들을 감시해 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선거가 재개되었다. 경찰이 회사측의 요청에 의해 출동하였고 정체 불명의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한영의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몇 명은 그들이 일하는 이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 모두는 신분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은 바로 며칠 전에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선거 후에 주임 자리를 약속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멕시코의 선거

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이들이 투표에 참가하자 한영의 노동자들이 밖에서 '공정'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FAT지지 55, FROM지지 32로 끝났다. 두 번째 나타난 그룹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단 승리가 확정되자 FAT는 멕시코 접경 지대의 사업장 중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제를 갖는 최초의 자주적 노동조합이 되었다. 3일 후 노동조합은 정체 불명의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도전장을 던진 투표자들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는 멕시코 정부와 한영

공정 선거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측은 FAT의 주요간부 12명을 해고한 것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FAT를 지지한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회사측은 FAT를 지지한 노동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집단적으로 베랍크구즈 지역의 노동자들로 대체 고용하고 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 중심의 단식 농성이 시작되었고 자신들의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해고 노동자들 중심의 단식 농성이 시작되자 현장 노동자들은 계속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합류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11월 10일 : 티후아나의 노동 관련 화해중재위원회(JNCA)는 한영기업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련 한달 이후로 미루며 유보 입장을 알려 왔다.

11월 20일 : 4명의 노동자 단식 농성 시작

11월 25일 : 물과 쥬스만을 마시며 농성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멕시코의 한 노동인권단체는 해고된 노동자 중 한 명은 갑작스런 해고로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던 부인이 병원마저 갈 수 없게 되었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호소해 왔다.

12월 11일 : 한영의 경영자들이 단식 노동자들의 텐트에 나와 다음을 약속했다.(이것은 분명 현대정공의 압력에 의한 것일 것이다.) "모든 해고자들은 복직된다. 해고된 날짜 이후의 급여를 해고자들에게 지급한다.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약속들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영은 언론에도 똑같이 얘기했다. 한편, 한영은 아직 노동자들의 독자 노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12월 13일 : 지난 금요일(12일) 몇 차례의 협상과 토론 끝에 한영노동자들과 한영 경영진

그리고 바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날 오후 1시에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해고자들에게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불한다는 골자의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정부의 대표자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고, 일체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티후아나의 언론은 이러한 주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12월 15일 : 한영 경영진은 새 선거에서 자주 노조를 낙선시키기 위해 각 노동자들에게 1000 페소씩을 뇌물로 제공함

12월 16일 : 한영 노동자들, 한영 경영진과 멕시코 연방 정부, 바야 주정부, 티후아나 노동부의 대표들 사이에 협상이 진행됨. 이 협상에서 정부와 한영 경영진은 이전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자주 노조를 승인하는 선거를 한번 더 하자고 주장함.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최근에 한영 경영자들이 뇌물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너무 장기화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은 새 선거에 동의함. 정부는 자주 노조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새 선거의 결과를 승인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이날 늦게 실시된 새 선거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주 노조(STIMAHCS)에 투표함.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주 노조를 인정함. 또한 지난 금요일에 작성되었으나 토요일에 비준되지 못한 합의문도 통과됨.

12월 19일 : 한 무리의 대체 노동자들과 한영 노동자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티후아나 노동부에 한영 경영진들과 함께 나타나 그들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CTM 노조만 상대할 것이며 두 번이나 선출된 자주 노조를 따르지는 않겠다고 발표함.

98년 1월 16일 : 2월 7일로 한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연대 규모의 지역적인 단체행동 예정. 한영의 파블로 강에게 현지 보내기와 한영 변호사 측에게 합의한 이행 촉구 편지 보내기

2월 18일 : 멕시코 정부가 노동 협정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열다. NAFTA체제 하에서의 노동 협정 불이행, 바야의 화해중재위원회의 편파적인 행동과 독립 노조 결성 방해 등을 청문회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정부의 안전 점검 결과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한영의 개선 활동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선거 감시와 민주 노조 설립 지원을 국제연대 물결

미국과 캐나다의 상급 노동조합과 인권 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연대 행동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선거 과정까지 감시할 국제감시단을 조직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해외단체에 알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의 노동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지지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APEC 회의 기간 중

민간단체들이 주도한 민간단체 회담(PEOPLE'S SUMMIT)에 한영 노동자가 참석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다.

미국의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원청회사인 현대기업 역시 하청을 주는 입장에서 노동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현대 불매 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 이미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현대 자동차 불매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은 12월 1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미국의 주요도시에 개장된 현대 자동차 판매 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매 운동을 할 것을 결정했다. 반면 캐나다의 관련 노동조합연맹과 노동인권단체는 현대 자동차 불매 운동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캐나다 안에서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내 운동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하며,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과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되는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신 캐나다 소재 멕시코 대사관과 현대 자동차 판매 책임사무소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현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근거, 인권단체들과 함께 거리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로 알려지자 각 나라의 노동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은 한영기업과 현대그룹 정몽규 대표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항의 서한을 계속 보내고 있다. 한편, IMF(국제금융연맹)은 한국의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앞으로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현대기업과 정부 기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한영기업> 또다시 파업

회사측이 자주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기결하자 한영노동자들은 98년 5월 22일, 조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 주동자를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3일 경찰은 파업 현수막을 찢어 버리며 무력으로 파업 중이던 노동자를 해산시켰다. 또한 주정부는 지역 신문사를 매수하여 보도 통제를 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멕시코 자주적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정부측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영기업의 긴박한 상황을 세계 여론에 알려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의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있으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 초안

1996년 참여연대 해외진출 감시위원회에서 초안 완성

1. 기업행동강령의 취지

-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 현지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 현지법과 ILO규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권의 준수
- OECD 가입이 의미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선진적이 노사관계의 실현
- 현지화를 위한 노력

2. 세부내용

■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육체적인 폭행, 몸수색을 하지 않으며 성적인 모욕이나 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지국가의 법률이 규정하는 아동노동 제한규정을 준수하며 최소한 15세 이하의 아동들을 노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15세를 초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학교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월 1회의 생리휴가와 최소 2개월의 출산휴가, 출산 후 재취업을 보장한다.

■ 현지국가의 법률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한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제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을 이유로 기업철수, 공장이전, 폐쇄, 배치전환등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활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 현지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대표에게 기업에 대한 성과를 진실하게 공개한다.

■ 성이나 인종, 종교, 문화적 관습을 이유로 채용과 급여, 인사관리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현지국가가 규정한 법정최저임금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현지국가의 동종 기업들이 지급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적절한 노동시간을 유지한다. 하루 8시간의 정규노동과 주1회의 휴가를 보장하며 현지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노동시간규정을 준수한다. 초과노동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주당 초과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해 현지법규가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현지국가가 요구하는 노동기준과 사회복지, 조세관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경유착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산업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한다. 현지국가의 법규에 따라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규에 따라 보상하며 노동자가 원하는 직무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작업장과 기숙사에는 제반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급시의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기숙사는 적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적절한 영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보호와 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현지국가의 법규의 법규에 따라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노동자들이 현지국가의 노동관련 법규와 기업의 관련규정, 기업행동강령을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공지한다.

■ 집단해고를 동반하는 기업이전이나 사업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들과 사전에 충실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

■ 적절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지국가의 법규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의무를 준수한다. 노동자들의 노동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기술이전을 통해 현지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에 연수생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저임금노동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다. 본국에서 파견된 기업의 대표자와 관리자들에게 현지언어, 현지의 법규, 문화와 관습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가 현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외국기업이 아니라 현지국가의 기업으로서 재투자를 통해 현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국내의 시설을 이전하여 진출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집단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과 전직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된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협조한다.

별첨 자료2

1998년 주요기사 색인-1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업체 수출총액 비상체제로 한국 수출비중 아시아 높고 북미 줄어 / 작년 하세안에서만 흑자 일 기업, 한국 수출공세 경계 / 석유화학, 철강제품 반도체 '햇빛', 철강 비구름 / 올 품목별 수출전망 올해 수출성장률 7.2% / 연평균 환율 1,900원선 사향산업 섬유업체 수출호기 맞아 부활모색 해외투자 '역력이 없다' 삼성 현대 1G 투자계획 카질 상장기업 해외차입 작년 10조 / 외환위기 부채질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98.01.07 동아 98.01.08 동아 98.01.08 동아 98.01.15 한국 98.01.19 문화 98.01.22 서울 98.01.22 한국 98.01.23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했던 신발 등 경공업품 다시 각광 동남아 '파생상품' 투자손실 눈덩이 / 금융권 리스크 50억불 피해 대미 수출 활기...올 20%이상 늘어날 듯 / 환율 올라 경공업제품 등 경쟁력 급속 회복 아세안, 비달러 무역결계 '빠른 길' / 5개국 중앙은행 총재 한자리 한국-남아공 자유무역협정 추진 올 해외 직접투자 60% 줄 듯 / 108개 업체 계획 취소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98.02.09 세계 98.02.13 문화 98.02.16 조선 98.02.16 조선 98.02.25 중앙 98.02.25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례화 방침 동남아 진출 우리 건설업체들 / 시공잔액 13조 / 수주액의 65% 수출주도 정책 결단 / 무역업계, 정부에 불만 기업 해외투자 '총체적 부실' / 부채비율 90%넘고 영업도 만성적자 대기업 해외사업 '부실경영' / 차입 '눈덩이'...부채비율 1,000% 육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98.03.09 서울 98.03.11 세계 98.03.21 한국 98.03.25 경향 98.03.25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경기 위축에 수출물량까지 줄어 / 시멘트 공장 가동률 최악 중국 수출 13년만에 첫 감소 / 1분기 29억달러 그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98.04.19 동아 98.04.23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 내달 방미때 콜린턴에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98.05.12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 양국 실무진 '체결' 합의 투자-지적재산권 포함 3단계 협정 추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 베트남, 한국서 직접 구입 / 덩핑경쟁 틈노려 - 현지 진출업체 타격 김대중 대통령 방미 -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 한-미 기업 '전략적 제휴' 촉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 98.06.01 조선 98.06.05 한겨레 98.06.06 동아 98.06.11

1998년 주요기사 색인-2

1998년 주요기사 색인-3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진출 기업 '귀국 보파리' 행렬 - 지사 철수·인원 감축 급증/올 상반기 2천8백명 L턴/수출시장 위축 불가피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30%가 조직을 철수하거나 축소 · 팔리는 공기업-누가 인수 나서나/외국 투자자 문의 잇달아 -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 산업자원부 '화교자본 유치' 나섰다 - 싱가포르 방문 투자 홍보 · 통화가지 하락 무역수지에 영향 - 한국 550억달러 개선효과 국제금융협회 올해 전망/아시아 7개국 중 최다 · 한미 양국간 투자촉진협정 체결/미, 7년만에 대한투자보증 재개/OPIC(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 	<p>경향신문 98.07.03</p> <p>동아일보 98.07.04 / 중앙일보 98.07.04 국민일보 98.07.08 한겨레신문 98.07.09 08</p> <p>세계일보 98.07.31 / 한국일보 98.07.31</p>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 '공룡화' / "아시아시장 전략적 거점 확보하자" - 독 바스프, 볼 프랑, 미 GM 포드 등 / 자본력 앞세워 국내기업 인수 박차 · 해외취업 병역특례 추진 / 전경련 "20만명 송출방안 마련" · 현대전자는 해외경영 모범생/적자기업 인수 흑자로/올 13억달러 외자유치/철저한 현지인 전략 주요 · IMF 처방이 아시아 경제 망친다/MIT 크루그먼 교수 - 금융긴축 고금리 강요 / 자칫하면 대공황 초래 	<p>동아일보 98.08.07</p> <p>조선일보 98.08.08 동아일보 98.08.11 문화일보 98.08.21</p>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제당 인터넷 무역시장 진출 - 국내외식품·정밀화학업체 대상 주문 접수/외국업체 개발상품 수출도 접수가능 · LG 상사 북한에서 가리비 양식 사업 - 태영수산물 공동 연 162만톤 생산 전망 국내 반입 · 중국내 한국매장 입주 위험 - 현지인들 전용상품시장 열어 투자 유혹/외국인 유통업 공식적으로 불법/보파리 무역 많아 필수적발 우려/내수시장 공급과잉, 실자리 좁아 · LG화학, 헝가리에서 철수 헝가리/「LG 파는 플라스틱」사에서 손을 떼고 철수 · 전자업계 설비 - 기술 해외이전 불/부지·자본은 현지조달, 생산라인 관련기술만 해외로 수출하고 공장부지와 자본 현지업체에서 제공 받는 IMF형 투자 확산/삼성, 대우 등 · 한화 아테네 은행 나티스그룹에 매각 - 인수한지 6년만에 3400만 달러받고 스위스 본사에/국외자산 매각방침에 따라/250만 달러 이익. · 헝가리 한국 기업 'IMF 시름' 없다 - 삼성·엘지 전자, 대우 차와 금융, 한화는 라면 매출 쑥쑥/유럽의 중심/1주내 물류 가능/무관세 혜택에 인건비도 매력 	<p>매일경제신문 98.09.02</p> <p>매일경제신문 98.09.02</p> <p>조선일보 98.09.04</p> <p>조선일보 98.09.07</p> <p>동아일보 98.09.07 / 매일경제 98.09.07</p> <p>매일경제신문 98.09.07</p> <p>한겨레신문 98.09.08</p>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아웃소싱 -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디자인, 디자인은 본사 생산은 협력사/여러회사 '최적의 조합'으로 효율극대화/국내선 구조조정 차원 '본사+외주' 형 주류 · LG 전자 터키에 에어컨 공장 설립 - 합작으로 2000년 완공/연간 30만대/2006년부터 추가투자로 연 50만대 예정 · 중동건설 재현/일·대만 새롭게 - 업계 해외시장 건설구도 재편 · 국외진출기업 성공사례 - 명원무역/상반기 이익 199억원/방글라데시, 자메이카, 중국 등에 현지공장/경영자와 종업원과의 신뢰,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현 국내의 해외해진 노동정신, 비효율적인 제반 경영환경 문제 · 남북 합영 백화점 평양에 세운다 - 성화국제그룹 이르면 11월 초에/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국제자유무역시장, 평양에 성화국제백화점 설립 예정 · LG정보통신 베트남 교환기시장 진출 - 1000회선 규모 교환기 개통식/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에 교환기 제조기술 수출 발판 마련 · 한국 인니간 구상무역 창구 확정 - 한국측 추진업체 LG상사, (주)이니셔티브 최종확정, 은행은 기업은행/인니측은 뱅크 네가라 인도네시아 은행을 매개은행으로/수출입거래 활기 전망 ·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승용차 엔진 공장 완공 · 루마니아 조선소 인수 추진 - 대우중공업 6000만달러선에 '콘스탄차' 매수 협상/유럽 신조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 LG화학 세계화전략수립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기술수출 연구개발 세계화/품질, 생산성 세계화/조직구성원의 세계화 등 5대전략/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 외국사 "한국인력 보내달라" - 싱가포르 람 동지서 건설기사 간 호원 등/실업대책 일환으로 산업인력공단이 개설한 해외취업센터에 요청 쇄도 · 대만에 클린룸 합작사 설립 - 신성이엔지 로열티받고 기술이전, 자체공급 	<p>동아일보 98.09.09</p> <p>매일경제신문 98.09.11</p> <p>매일경제신문 98.09.11</p> <p>매일경제신문 98.09.14</p> <p>매일경제신문 98.09.15</p> <p>매일경제신문 98.09.16</p> <p>매일경제신문 98.09.18</p> <p>매일경제신문 98.09.19</p> <p>매일경제신문 98.09.23</p> <p>매일경제신문 98.09.28</p> <p>매일경제신문 98.09.29</p> <p>매일경제신문 98.09.29</p>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불 중 합작 오디오 회사 설립 - 프랑스 톰슨의 중국현지공장 활용 국내벤처기업과 합작 · 쌍용정보통신 싱가포르 공장 자동화사업 수주 - 시멘트공장 출하 자동화 프로젝트/동남아시아시장의 시스템 구축 및 공장자동화 관련 사업 강화계획 	<p>매일경제신문 98.10.01</p> <p>매일경제신문 98.10.02</p>